

- ▶◀ [이달의 인물] 진주고등학교 미술사 김태환
- ▶◀ [[청소년뉴스] 교육부, 학생부 관리지침 개정
2018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1순위는?
미성년자 성매매 온상, 채팅앱, 대책 절실하다
- ▶◀ [[학교소식] 제4회 대한민국인성영화제 경해여중 이서은대상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시대' 열다
박종훈 도교육감, 진주중앙고 교실 방문
진주고 동문합창단 비봉코러스, 창단공연 펼쳐
- ▶◀ [[맷캉년맷반] 진주고등학교 2학년 2반편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3반편
- ▶◀ [[맷캉년맷반-신청] 진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9반편
동명고등학교 1학년 4반편
- ▶◀ [[19금 파헤치기] 10시 출입금지! 뚫린 PC방은 어디야?
- ▶◀ [[특집]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
- ▶◀ [[특별기고] 박종훈 교육감님께 보내는 성소수자 학생의 편지
- ▶◀ [[글로벌미팅] 유학중인 필통 명예기자의 캐나다 이야기
- ▶◀ [[학교&한컷] 삼현여고엔~ 중앙고엔~
- ▶◀ [[동아리탐방] 선명여자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인터렉트'
- ▶◀ [[우리 학교에만 있다] 너무나 특별한 명신고등학교의 역사
- ▶◀ [[I'M FASHION PEOPLE] 최정업 (태야고) & 정유빈 (진주제일여고)
- ▶◀ [[SNS 맛집 검증] 가좌동 김씨네 리멘트라픽
- ▶◀ [[JOB을 잡아라] 한국트론박물관 손윤재 관장님을 만나다
- ▶◀ [[씨네통통] 영화, 살인의 추억 (Memories of Murder, 2003)
- ▶◀ [[필통 그 후] 2013년 5월호 그달의 인물, 최지운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건축학과를 찾아서
- ▶◀ [[취재수첩] 반티,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입니?
보건선생님 어디 가셨지?
내 돈 어디갔어? 교내 절도범죄 대책 없나?
오작동으로 아무 때나 울리는 화재경보기
학생들에게 똥 쌀 권리를 허하라!
애들아, 생기부 왜 너네가 써?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2월호 문제

2019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학생기자단 공개 모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 *모집인원 : 15명내외
- *모집대상 : 진주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퇴학생도 지원 가능함)
- *문의 : 전화 070-8628-1318 /
카카오톡 아이디 feltong1318



2018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진주고등학교 미술사 김태환

전국 모든 요양원에서 마술 공연을... 직업이 아니더라도 마술은 제 삶의 일부니까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진주고등학교 2학년 6반 진주고 대표 마술사 김태환입니다.

Q. 마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우연히 마술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마술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꾸만 찾아보게 되고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흥미는 더해졌고 매력을 느껴 계속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Q. 마술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을 상상했건, 어떤 것을 떠올리던지 모두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한 것들 모두 트릭으로써 시각화되어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한 매력 때문에 제가 마술에 빠져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술의 길은 걷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게 마술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제가 원하는 진로를 꾸준히 탐색 중이지만 마술은 언제나 제 곁에서 떠날 것 같진 않습니다.

Q. 지금까지 마술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꼽으려면?

A. 마술대회에 자주 나가곤 했는데 제가 받은 상 중 가장 큰 상은 2015 울산국제마술대회(UIMC)에서 대상을 수상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벽인 줄만 알았던 각 나라를 대표하는 마술사들이 저를 마술사로서 인정해 주며 박수를 쳐주는 순간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가장 가슴 뿌듯했습니다.

Q. 많은 마술 대회에 출전해서 수상 경력이 있다고 들어요!

A.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탐구하다보니 자연스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 결과

· 2014 울산국제매직컨벤션3위, special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제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일을 하며 살든 전국의 모든 요양원에서 마술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Q. 마술 관련 직업을 가질 생각이신가요?

A. 어릴 적에는 한 번씩 꿈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다보니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직업으로서

award수상

· 2014 마산전국마술대회 2위 수상

· 2014 여수전국마술대회 1위수상

· 2014 한국마술협회 winner award 수상



· 2015 전주전국마술대회 2위 수상
· 2015 울산국제매직컨벤션(UIMC) 1위
· 2015 아시아매직컨벤션(AMA) 2위
등과 같은 어마무시한^^ 수상실적을 가진 마술사로 성장했습니다^^

Q. 마술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A. 가장 좋아하는 마술분야는 스테이지 마술입니다. 쉽게 말해, 무대에서 관객에게 하는 마술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 매니플레이션, 비둘기마술, 캔들, 케인등을 활용한 마술이 스테이지마술입니다. 흔히 마술공연 가면 볼 수 있는 마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접한 마술이기도 하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A. 저의 롤모델은 우리나라 대표 마술사 중 한명인 이은결 마술사입니다. 이은결마술사

는 2001년에 한국인 최초로 월드 매직 세미나 재팬이라는 국제마술대회에 참가하여 그랑프리를 거머쥐었고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한국마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은결마술사는 타고난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20시간씩 연습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통해 성장한 마술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존경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는 평소 마술대회 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가곤 합니다. 저의 마술을 보고 기뻐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분에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에 위안과 웃음, 작은 행복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제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일을 하며 살든 전국의 모든 요양원에서 마술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술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주고등학교 축제 공연에서 비둘기 마술을 선보이는 모습〉



▲〈2017년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자매결연단 우호교류 진주고 방문때 공연〉

◀〈2016년 하동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마술 봉사활동〉

◀〈2015 울산국제매직컨벤션 UIMC 대상수상 액트공연중이다〉

▼〈2017년 진주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초청공연을 하고 있다〉



▲〈멋있게 찍어본 프로필 사진〉



[취재/ 임수중(진주고2), 정세준(진주기공2)기자]

교육부, 학생부 관리지침 개정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 항목 삭제
수상경력 학기당 1개만 작성, 내년부터 학생부 대폭 간소화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완에 대한 점검이 정례화 된다.

■학생부서 학부모 정보 진로희망 등 삭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2월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또 대입제출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

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미기재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교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해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했다.

■학생평가 보안관리 정례화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출제·인쇄·시행·채점 단계로 보안 관리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

가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2018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1순위는?

초등학생 운동선수, 중·고생 교사 1위



12월13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6~7월 동안 전국 초·중·고 1200곳의 학생 2만 7265명(초6 8597명·중3 9122명·고2 9546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중·고등학생은 교사가 각각 희망직업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보다 새로운 직업이 다수 등장했고 의료·이공 계열 직업이 보다 다양해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방송진행자(유튜버), 중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고등

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이 희망직업 10위권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또 의사·간호사로 양분되던 의료 관련 직업이 의사·간호사·의료·보건 관련직으로, 과학자·엔지니어로만 구분되던 이공 계열 직업이 화학·생명·과학·컴퓨터공학 등으로 세분화되는 등 학생들의 희망직업이 구체화된 것도 눈에 띈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희망직업 1위로 운동선수를 꼽아 10년 간 부동의 1위였던 교사를 2위로 밀어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이 활성화되면서 희망직업이 보다 다양화, 구체화돼 10여 년간 상위 10위가 차지하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초·중·고 모두에서 '내가 좋아해서'(초 56.3%, 중 51.8%, 고 48.6%), '내가 잘할 수 있어서'(초16.6%, 중 19.6%, 고 21.4%)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7년	2018년	2007년	2018년	2007년	2018년
1	교사	운동선수	교사	교사	교사	교사
2	의사	교사	의사	경찰관	회사원	간호사
3	연예인	의사	연예인	의사	공무원	경찰관
4	운동선수	요리사	법조인	운동선수	개인사업	뷰티 디자이너
5	교수	인터넷방송(유튜버)	공무원	요리사	간호사	군인
6	법조인	경찰관	교수	뷰티 디자이너	의사	건축가
7	경찰	법률전문가	경찰	군인	연예인	생명·자연과학자(연구원)
8	요리사	가수	요리사	공무원	경찰	컴퓨터공학 개발자
9	패션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패션디자이너	연주가(작곡)	공학 엔지니어	항공기승무원
10	프로그래머	제과제빵사	운동선수	컴퓨터기술자	패션디자이너	공무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정보를 주로 학부모·가족, 담임교사, 커리어넷(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정보망)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학

부모·가족을 통한 정보획득비율이 44.8%, 담임교사가 44.6%, 커리어넷이 42.7%였고, 고등학생은 55.6%가 커리어넷, 33.8%가 담임교사, 30.5%가 워크넷을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온상, 채팅앱. 대책 절실하다

규제없는 성매매, 경로는 채팅앱이 67%로 1위



간단 100이나 조건 20~35 정도에 가능하세요?"

채팅앱이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했다. 법무부 집계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2014년 961건이었으나 2015년 978건, 2016년 1365건, 2017년 1485건으로 3년 새 약 54% 증가했다. 또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으로 입건된 청소년 역시 2013년 130명에서 2017년 245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채팅앱이 1위(67.0%), 인터넷카페·채팅이 2위(27.2%) 순

이었다. 같은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로 중 1순위는 채팅앱(37.4%)이었다. 2순위는 랜덤채팅앱(23.4%), 3순위는 채팅사이트(14.0%)로 모두 합해 온라인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75%에 달했다.

그러나 채팅앱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앱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는 공익광고만 붙 뿐이다. 미성년자도 채팅앱에 스스로를 20살 이상으로 설정하면 가입은 물론, 채팅이 가능하다. 수백 개의 채팅앱이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성인인증 등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이다. 여가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범행 근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성매매 조장을 방조한 채팅앱 317개 중 무려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가입과 이용이 가능했다. 이들 채팅앱 대부분의

권장사용 연령은 17세였다.

대부분의 채팅앱은 성범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대화 캡처를 못하도록 막아 놓았고, 대화방에서는 한쪽이 나가면 내용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성매매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앱 자체가 포주"라고 말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 문제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5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정보통신(IT)산업 위축', '악용 우려' 등 반론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반대 때문이다. '본인확인·신고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아서다. 법무부의 다소 보수적인 시각도 장애물 중 하나다. 법무부는 2016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면 법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청소년 알코올 중독 7년새 2배 급증 청소년 음주 빨간불

지난 12월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10세~19세) 환자 수는 총 1968명으로 7년전 922명에 비해 2.1배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가 추세는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및 구매 용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음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위험 음주(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기준 소주 5잔 이상, 여자 기준 소주 3잔 이상) 비율도 5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청소년 음주자의 위험 음주 비율은 남성 46.1%, 여성 49.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각각 55.4%, 48.5%로 증가했다. 음주를 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이 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위험 음주는 중학생(남자 31.7%, 여자 39%)보다 고등학생(남자 54.5%, 여자 60.1%)이 높게 나타났다.

제4회 대한민국인성영화제 경해여중 이서은의 목검 대상

제4회 대한민국인성영화제 대한민국인성페스티벌조직위원회(위원장 이순재)는 지난 12월1일 구리시청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거행된 가운데 시상식을 통해 경해여중 이서은의 '목검'이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올랐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5개 부처 장관상 수상자도 가져져 내년 제5회 인성영화제의 큰 도약에 한걸음 더 내딛고 있다"며 "인성영화제는 음악과 영상을 통한 학교폭력예방과 바른인성교육 추구로 인성영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확산돼 400여회 영상교육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성영화제는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고잘미)' 고잘미 보급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공모분야는 영상·영화·뮤직비디오·UCC 등으로 초·중·고·일반(대학) 부문으로 나뉘어 지난 10월 26일 공모를 마쳤으며, 전국에서 135편을 출품했으며, 51작품이 수상작에 올랐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 교육부, 여성가족부장관상에 이어 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장관상이 더해져 대상 1편, 최우수상 4편의 장관상 수상자가 결정돼 이

날 상장과 시상금을 받았다.

경남 진주 경해여중 '목검(이서은)'이 대상에 올라 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대상작 '목검'은 극영화로 문제이이자 반항아 최유빈이 주인공으로 가출 후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도중 아버지가 찾아와 목검을 들고 내리친다. 이를 막아선 담임의 희생을 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한 소재지만 청소년이 바라본 상황을 잘 표현했다. 인성영화제 취지에 알맞은 작품이기에 대상의 영예를 안아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제4회 대한민국인성영화제는 (사)평생교육콘텐츠협회가 주최했으며, (사)한국영상예술협회가 주관했다.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후원과 구리시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인성콘텐츠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이끌었다.



창원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시대 열다



이 무상교복지원을 환영

창원시는 12월14일 도내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전액 시비로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창원시 교복지원 조례안' 및 교복지원 예산 58억원 등이 포함된 내년도 본예

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만9000여명은 교복구입비 3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1인당 지원금 30만원은 경남교육청이 산정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30만3348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교복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다른 법령 등으로 교복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은 하성무 창원시장의 대표적 공약사항이다. "창원시의 미래희망인 소중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교복 한 벌은 잘 입혀서 근사하게 입학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장 후보자 시절 소신에 따라 취임 즉시 공약 이행을 위해 빠르게 추진돼 왔다.

박종훈 도교육감 진주중앙고 교실 방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12월10일 진주중앙중학교 학생들을 만났다. '2018 이야기가 있는 학교방문'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주중앙고 1학년 교실을 깜짝 방문한 것이다. 박 교육감은 20여 분간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비가 내리는 날마다 양말이 젖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학생들의 건의를 듣고 신발장이나 우산꽂이 설치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공동체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진주중앙고가 첫 번째 방문 학교였다.

진주고 동문합창단 비봉코러스, 창단공연 펼쳐



진주고등학교 동문합창단 비봉코러스 창단공연이 지난 12월14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비봉코러스는 진주고 동문 24회(84세)부터 60회(48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비전공자들로 구성됐다. 평생을 누릴 수 있는 격조 높은 여가활동으로 높은 가성비(價性比)와 깊은 가심비(價心比)를 자랑한다.

'다시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비봉코러스 창단 공연은 이승업 지휘자(24회)의 유연한 지휘와 윤정은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 진행됐다. 정지용의 시 '향수'와 조두남의 '선구자', 그리고 라트비아의 가요인 '마리나가 준 소녀의 인생'이란 곡에 러시아어 가사를 붙인 '백만 송이 장미', '암모 암모'가 흥겨운 반박되는 이태리 가곡 '푸니쿨리 푸니쿨라' 등 귀에 익은 노래가 조화로움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특히 비봉코러스 이경수(30회, 78세) 단장은 구름의 시 '시몬 너는 좋으나 낙엽 밟는 소리가'의 낭송에 이어 상송 '고엽(Les feuilles mortes)'을 불러 갈채를 받았다.

김경수 지사, 청소년들과 통하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청소년들과 통하다! 김경수 지사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경남운동본부' 소속 청소년 대표단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청소년 대표자 배혜량(무학여고 3학년) 학생의 사회로 격의 없이 진행됐으며, 김 지사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청소년 정책에 대해 듣고 상세히 답변했다.

학생들은 경남 청소년 거리 만들기,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고 그 외에도 청소년 18세 선거권 보장,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스프링없이 질문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좋으며, 살기 좋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쏟을 것"이라며 "제안된 내용에 잘 살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남자동차교 육군과 학·군 제휴 협약 체결

경남자동차교는 지난 11월29일(목) 오전 11시 육군본부에서 신규 군 특성학교 8개 학교 관계자 16명, 육군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자동차교와 육군이 차량정비 분

야 관련 교육과 교육 기자재 지원, 교관 지원, 교육 교보재 지원, 실습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전문 기술 병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전국에 10개 특성학교가 국방부 지정 군 특성학교로 선정되어, 육군, 해군, 공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협약식에 경남자동차교는 차량정비 분야 대상자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졸업 후 관련 군 부대에서 전문병 18개월과 전문하사 18개월 총 36개월 군복무를 하며, 하사로 군 복무 시 영외 거주를 하고,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진출 시 우대한다. 또한 군 복무 중 학비 50~100%를 지원 받으며 e-MU 제도에 의한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문산중 과학 동아리 꿈과 희망을 기부하다

문 산 중 학 교 의 과 학 동 아 리 'M.S.G.(MunSan Science Genius)'는 지난 4월 13일 문산지역아동센터와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3회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 동아리 M.S.G.는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에 문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ECO-STEAM 활동 및 과학실험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기부활동에 참가하는 동아리 학생은 다양한 과학 활동과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 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다섯 가지 활동으로 과학 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M.S.G. 활동 과정을 모아 제26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경남과학동아리 발표 대회 최우수상, 전국 과학동아리발표대회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명석중, 지역 독거노인 돕기 김장담그기로 사랑나눔 실천

명석중학교는 명석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돕기 김장담그기 행사를 12월 4일에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배추 80여 포기 김장을 하였고, 명석면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은 독거노인 10분께 학생회 간부 및 학부모, 교사가 직접 전달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명석중학교는 매월 한 번 인근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 어르신들의 말벗 및 놀이친구가 되어 주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경남과학고, 전국 20개 과학고 중 서울대 최다 배출 1위!

경남과학고등학교는 12월 14일 2019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에서 23명의 합격

생을 배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과학고는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 수 기준 전국 20개 과학고 중 1위를 차지하고, 전국 10위 안에 드는 실적을 거두었다. 경남과학고는 서울대에 2017년 15명, 2018년 18명에 이어 2019년에는 서울대에 2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KAIST 31명, POSTEC 10명 등 연구 중심대학에 총 80여명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남과학고의 서울대 남다른 합격 비결은 수많은 교내 모의 심층을 통해 사고교육 없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마당극 남명 진주수험생에 호응

큰들 문화센터의 마당극 '남명'이 청소년 수험생들에게 선보여졌다. 이번 마당극은 12월13일 오전 10시30분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관내 고등학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와 진주문화원에서 공동으로 수험생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 극은 남명의 삶과 중요 일대기를 그려냈다. 남명의 실천사항, 사직상소문 단성소 등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데 주력했다. 한편 진주시는 청소년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소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한컷] 삼현여고엔~ 중양고엔~

[삼현여고& 한컷]

삼현여고는 공사중?
석면 천장 전면 교체,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삼현여고는 지금 공사중이다. 지난 12월 16일부터 오는 1월 20일까지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본관 동 건물, 급식소 천장이 전면 교체된다. 이는 현재 삼현여고의 천장이 여전히 위험 물질인 석면 소재의 마감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석면 천장 철거 공사로 인해 삼현여고는 다른 학교보다 2주나 이른 겨울방학을 맞았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학교 모든 시설은 출입금지 상태이며 겨울방학 보충수업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면 삼현여고 학생들은 석면가루 걱정 없는 교실과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사와 함께 학교의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해 쾌적한 환경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도 도움이 될 듯 하다.

삼현여고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보충수업도 없고 너무 이른 겨울방학에 환호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겨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은 안전한 교실이 아닐까 한다.

[중양고& 한컷]

꽃을 배달해준다고?
특별한 축제 이벤트 비밀의 화원



지난 12월 19일은 진주 중양고등학교의 제 16회 한마루 한마당 축제가 열린 날이다. 어느 학교 축제마냥 신나고 재미있는 공연과 행사가 학생들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진주중양고 축제에는 아주 특별한 축제 이벤트가 있다. 바로 예쁜 꽃과 사연이 담긴 편지를 배달해준다는 '비밀의 화원'이라는 이벤트다.

비밀의 화원은 누구에게든 평소 하고 싶었던 말, 미안하고 고마웠던 마음들을 꽃다발에 담아 전할 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벤트다. 공짜는 아니다. 그런데 비용도 놀랄만큼 굉장히 저렴한데 꽃만 주문할시 400원, 편지도 함께 주문하면 500원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꽃다발이 부

실한 건 절대 아니다.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다.

신청 방법 또한 쉽다. 중양고 비밀의화원 오픈채팅,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 실명 둘 다 가능하다. 특별히 축제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똑같은 가격에 더 큰 꽃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중양고등학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때 서로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좋은 이벤트인 것 같다.

[취재/ 이윤지(삼현여고2), 진가희(진주중양중1)기자]

[필통 그 후] 2013년 5월호 그달의 인물, 최지윤

한국 복싱 최초 부녀 국가대표였던 그녀..
5년이 지난 오늘은 체육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체육교사로 교생실습 중)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 청소년복싱 국가대표 최지윤입니다! 나이는 23살이구요, 현재 부산의 신라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필통의 표지인물이었죠^^

Q. 5년 전 인터뷰하고 난 뒤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일단 제 인생의 전부였던 복싱이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 취미로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육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여 4학년 졸업앞두고 있습니다.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Q. 복싱을 하시면서 후회하신적은 없으신가요?

A. 없습니다! 복싱선수를 그만 두게 되었을 땐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것도 하나의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꿈을 위해 노력 할 수 있으니까요. ㅎㅎ

Q. 그동안 복싱과 관련되어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라면?

A. 아무래도 배우 이시영님과 경기 아닐까요? 많은 카메라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기대도 했던 터라 후회가 많이 남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ㅎㅎ

Q. 선배의 입장에서 운동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A. 운동선수로서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 두 가지를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는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목표한 꿈을 이루고 나면 굉장히 허탈해지고 방황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운동외에도 그 다음의 꿈도 함께 생각하면서 현재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Q. 다시 필통과 인터뷰한 소감?

A. 첫 인터뷰 때와 상황이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고 또 한 번 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억이 저에게도 또 다른 자국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필통 5월호 표지모델이었던 당시 진주여고 최지윤씨)



(대학생활중 해외봉사활동)

[취재/ 정의찬(진주교2)기자]

[우리학교에만 있다] 명신고의 특별한 역사

너무나 특별한 명신고등학교의 역사 1991년 국가에 헌납되어 사립에서 공립으로

여러분의 학교는 어떤 종류의 학교인가요? 사립? 공립? 아니면 공립? 진주의 고등학교들은 대개 사립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신고등학교는 아주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립학교다. 그 시작은 분명 사립학교였다.

1980년 5월 15일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83년 4월 19일 학교설립승인을 받은 명신고는 1984년 3월 1일 명신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입학

식을 거행했다. 설립자는 진주 남성당 한약방의 김장하이사장이다. 明德新民을 창학이념으로 하여 개교하여, 설립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초창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크게 신뢰를 얻게 되었다.

교육의 기본시설로서 교지 확보는 물론 현대식건물에 보통교실(이중창), 특별실, 독립 도서관, 체육관을

검한 강당, 생활관, 구내식당 등과 같은 학생 편의시설과 정서적인 환경 구성 등 교육시설을 1889년 말까지 완성하였고, 개교 때부터 우수교원을 초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1991년 6월 1일 경상남도교육감을 만나 학교 기증 의사를 밝혔다.

김장하 이사장은 학교 설립 당시부



터 '교육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말하며 명신고의 국가 기증을 선언했다. 진주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아가던 명신고등학교는 1991년 9

월 1일자로 공립 고등학교로서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명신고 설립자 김장하 이사장님

"본교 설립의 모든 재원이 세상의 아픈 이들에게서 나온 이상, 이것은 당연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남성 김장하. 그의 한약방은 누추하다. 오래된 상가 건물, 나무 마루는 너무 낡아서 삐걱거린다. 여전히 낡은 3층 건물에 살고 계신다. 김장하 선생은 1983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설립한 명신고등학교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91년 8월 17일 퇴임했다. 그때 선생은 명신고등학교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학교는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었다.

그가 왜 학교를 설립했고, 왜 헌납했는지는 1991년 8월 그의 이사장 퇴임사에 나와 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 큰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겠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립한 학교를 국가에 헌납한 이유는 이랬다.

"그런 이유에서 설립된 것이 이 학교이면, 본질적으로 이 학교는 제 개인의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본교 설립의 모든 재원이 세상의 아픈 이들에게서 나온 이상, 이것은 당연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교가 공공의 것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공립화요, 그것이 국가 헌납이라는 절차를 밟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취재/ 김민수(명신고1)기자]

들어나 봤나? 학교안에 문화재가 있다

삼현여고 - 석조여래입상



석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말기~고려초기의 작품으로서 1998년 11월 13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71호로 지정됐고 삼현여고 정문에서 교정으로 향하는 길의 우측 화단에 안내판과 함께 놓여 있습니다.

불상의 높이 1.65m와 받침 15cm 정도로 과거 머리 부분이 떨어져 시멘트로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눈에 봐도 훼손 정도가 심해 보였고 특히 얼굴 부분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주여고 - 석불 좌상



옛 진양군의 한 시민이 진주여고에 기부했다고 하는 석불 좌상입니다. 진주여고 우측의 음악실 밑에 여러 석조물과 함께 있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두 구의 석불 좌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한 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부분과 오른쪽 다리, 대좌(부처나 보살이 앉는 자리)가 파손돼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는커녕 문화재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진주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조차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아고 - 이현동 삼층 석탑



대아고 내에 위치한 삼층 석탑입니다. 대아고등학교에서는 지판과 함께 돌로 담장을 쳐 놓아서 다른 곳에 비해 찾기가 편했습니다. 통일신라~고려전기 만들어진 듯한 이 석탑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석탑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탑에 있는 세 개의 탑신석(석탑의 몸체를 이루는 돌)에는 양 우주를 조각해 놓았다고 합니다. 경남문화재자료 270호.

동명고 - 영장심공낙신영세불망비/ 석조귀부 및 이수



동명고등학교는 문화재가 두 개 있었습니다. 영장심공낙신영세불망비와 석조귀부 및 이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장심공낙신영세불망비는 조선 중기의 무신 유홍우와 심낙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송덕비로서 진양호로 통하는 강변도로 개설 중 발굴돼 현재 동명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석조귀부 및 이수는 거북이의 위에 용이 타고 있는 형상입니다. 원래 경상남도 산청군의 한 고분 옆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진주동명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필통편집국]

[특집]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되나?

박종훈 교육감님께 보내는 성소수자 학생의 편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12월10일 자신을 경남 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한 성소수자 학생이라고 밝힌 학생이 박 교육감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왔다. 아래는 편지 전문이다.



박종훈 교육감님께...

박종훈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000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경남에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학교는 좁고 불편하고, 불행한 공간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저희 학교는 한겨울에도 교칙 때문에 좁고 불편한 교복과 스타킹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여러 시설들도 너무 열악합니다. 개수가 적어 늘 붐비는 학생

화장실은 문이 고장 나서 잘 잠기지 않습니다. 성적에 따라 모든 것이 평가받는 공간은 또 어떤가요. 언제나 성적에 대한 크고 작은 압박을 받고 긴장을 해야 하는 학교는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긴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면 더 나은 화장실과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조례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암시(?)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주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교육감님도 그 부분을 걱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학생인권조례안에서 가장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부분은 제16조의 '차별의 금지'였습니다. 처음 조례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16조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저는 몇 번이고 읽어 봤습니다. 교육청

에서 직접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비록 한 줄의 문구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소수자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소수자인 저에게 학교는 늘 불행한 공간입니다. 친구들에게 성소수자라서 "더럽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N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동성도 서로를 밀어내야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할 때도 성소수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희귀한 사람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이럴 때면 학교에 다니는 성소수자인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듯 저는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숨 쉬듯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다면 저를 비롯해 일상적으로 차별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의 학교생활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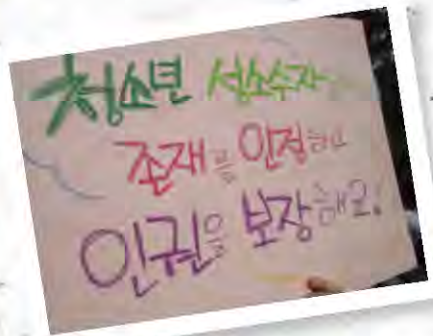
얼마 전엔 우연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의 전단지들을 보았습니다. 동성애를 질병인 것처럼, 성소수자들이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글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평범한 사

람들이 그런 전단지를 나누고 받아 읽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 조항이 뜨거운 감자가 된 지금 상황은 저에게 제 삶과 정체성을 찬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사를 보니 교육감님께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져가기 힘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셨고 선출직이기 이전에 교육자라는 걸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저 같은 성소수자 학생을 비롯해 학교에서 차별받는 학생들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정체성, 저의 존재를 찬성과 반대로 나누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의 안전을 지키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세요. 교육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 편에, 특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수자 학생들 편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70주년에,
학생 000 올림



김용균의 죽음. 함께 사는 세상은 없다.

사지가 찢겨 널부러진 참혹한 시신을 두고 세상은 컨베이어 벨트의 재가동이 우선이었다. 경찰보다 정비업체를 찾았다. 결국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돈 앞에 생명은 그것 따위일 뿐이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랬다.

세상은 돈. 돈. 돈. 돈이 안 되면 회사도 없애고 사람도 짜르고 허청에 재하청.. 비정규직이라도 목메는 노동자는 짐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생명줄도 줄여야만 했다.

세상은 여전히 더럽다. 그 더러움을 벗어나려는 힘은 돈과 권력 그리고 그것을 향하는 침묵의 카르텔 앞에선 나약하기만 하다.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학교에선 경쟁에 이겨서 정규직 되란다. 인간대접 받으려면 좋은 대학 가야한다. 공부 못하면 루저요, 비정규직 된다고, 사람 같이 않은 노동자 된다고, 세상의 부모들은 협박한다.

학교에서는 더러운 세상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배우지 않는다. 사람이, 생명이 그 자체로 얼마나 존중 받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와 학교로부터 끊임없이 이 더러운 세상에 최적화 되는 길, 그 돌고 도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삶이 그렇게 강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

생명과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니까
누구나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되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니까
김용균.. 심석희.. 스쿨미투..
우리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언제나 반복될 것이니까.

심석희의 금메달. 폭력이 용인되는 세상의 민낯

심석희 선수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고,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단다. 밀폐된 곳으로 끌고 들어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자신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온 국민이 감동했던 평창올림픽 전엔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 라고 털어놓았다.



어디 빙상계에만 있는 일일까? 이런 우리나라 체육계,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는 폭행, 일처러 등은 당연한 듯 여겼다. 마치 그것이 운동의 일부인양, 전통인양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했다. 좋은 성적을 위해, 1등, 금메달을 위해 때려도 되고, 맞아도 되는 운동부가 있었다.

세상엔 사람이 다른이에게 맞아도 될 만한 일은 없다. 그 어떤 이유라도 차별과 폭력이 정당화 되어선 안 된다. 왜, 우리는 맞아도 된다고, 맞아도 싸다고, 맞을 짓을 했다고, 늘 그렇게 들었을까? 그래서 어느새 자신마저도 그래도 된다는 믿게 되어 버렸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엔 여전히 폭력이 당연시되고 정당화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돈 때문이건 위력이거나 권력이건 또 그 외 어떤 종류의 폭력도 건 용납되지 않음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함이다.

스쿨미투, 만연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자화상



올해 '트위터' 국내 사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스쿨미투'다. 교내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미투운동(MeToo·나도 말한다)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도 스쿨미투와 관련된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서 겪어온 일상적인 성차별, 성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스쿨 미투가 터져 나온 학교가 전국에 68개 학교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학내 성범죄 실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건, 2014년 1429건, 2016년 238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폭위가 다루는 전체 학교폭력 심의 건수 가운데 성폭력 심의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4.9%에서 2015년 9.2%, 2016년 10.0%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체와 사생활은 쉽게 침범당하고 통제당하는 대상이 되어왔다.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규칙과 문화 속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도 더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및 성평등의식 역시 학교교육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성 인식과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 학교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성교육조차도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왜곡된 성인식 및 성별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곤 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위치,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의견을 말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학교 운영에 참여하거나 민주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부당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힘을 갖기 어렵다.

[19금 특독] 10시 이후 PC방 가봤어?

10시 출입금지! 뚝린 PC방은 어디야?

이번 '19금'의 소재는 바로 밤 10시 이후에 PC방 출입하기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22시 이후로는 청소년의 PC방 출입과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야간 10시 이후에도 여전히 PC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우리 지역 PC방들이 22시 이후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단속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필통기자 3명이 밤거리를 두드려 보았다.



혹시 밤 10시 이후에 피시방에 가본 적 있어?

K남자(고1): 아니 10시되면 아 낄까봐 10시 이전에 나왔어.

J남자(고1): 10시 넘어서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깐 PC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보냈어.

Y남자(고1): 10시 넘어서 피시방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써서 1시간 반 정도 게임 하고 나왔어.

J남자(고1): 피시방에 갔더니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서 어려움 없이 피시방에 들어 갔어.

P남자(고1):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고 신분증 없다고 하니까 나가랬어.

밤 10시 이후에 직접 PC방에 가보았다



잠깐 토크후 필통기자들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진주시 하대동 일대 PC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밀집해 있는 6개 PC방을 선정했고 9시이후부터 들어가 있어 보기도 하고 10시를 좀 넘긴 시간, 그리고 좀 더 늦은시간을 정해 취재해 보았다.

단속을 소홀히 한 곳들 중에서도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서 그대로 둔 곳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아예 신분증 확인을 할 생각도 없는 PC방들이었다. 이런 곳은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아르바이트생이라서 관리자만큼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직접 갔던 PC방 중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피시방 출입에 신경 쓰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실시되었는데 이런식으로 관계부처의 관리나 단속 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이럴 거였으면 굳이 법으로 제정했어야 할까 싶다. 관계 당국 차원에서 관리, 감독강화로 청소년들이 건



전한 게임, 인터넷 사용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각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무조건 10시 이후로 '뚝린' PC방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과태료등 큰 피해를 보게 될 PC방을 조금만 더 배려해보는 건 어떨까? 또한 같은 또래이거나 형 누나들인 아르바이트생 또한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스스로 자제했으면 한다.

TIP! 10시 이후 PC방 출입 방법?

그러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할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보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친족 (혈족 및 인척), 단 친족의 경우 8촌까지, 외가는 4촌까지 인정되며 이때 보호자의 나이는 만2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정보에서 인정하는 교원, 즉 초/중/고 교사들은 보호자로서 미성년자와 함께 PC방 야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지도자, 이 역시 지도자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을 때 보호자로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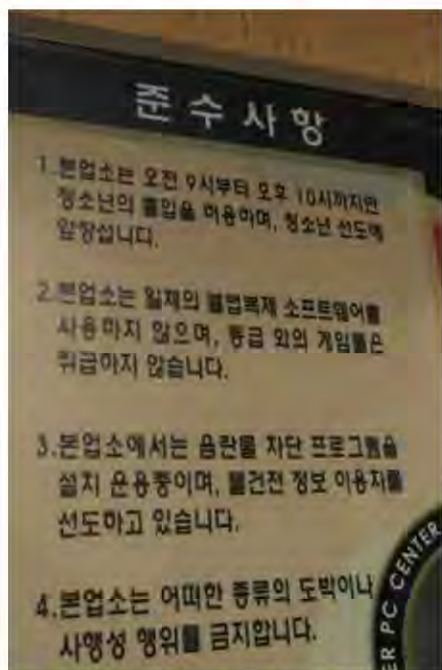
※ 부모님동의서 안됩니다. 법적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출입을 요청한 뒤 보호자는 돌아가는 경우도 안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반사항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2차 적발 : 영업정지 1월 / 3차 적발 : 영업정지 3월 / 4차 적발 : 영업정지 6월입니다.

[PC방 취재 결과]

피시방 이름	출입 시간	결 과
하대동 W-PC방	21:40~22:00	10시에 민중검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을 내보냈다.
하대동 R-PC방	22:10~	10넘어서 피시방에 들어갔고 약 30분동안 피시방에 있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대동 S-PC방	22:40~	피시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식배달을 하느라 열심히 하였고 검사를 생각지 않아 보였다.
하대동 BL-PC방	23:10~	무인 출입기가 있어 앱으로 인증하고 들어가야 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하대동 P-PC방	00:30~	아무도 청소년의 출입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대동 BU-PC방	21:40~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으나 신경 쓰지 않았고 제재도 없었다.

2000년생 고3, PC방 출입? 알바 가능해?



최근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의해 주류를 판매한 식당은 처벌을 예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외 업종과 상황에는 여전히 불합리함이 남아있어 조속한 후속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편의점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청소년 문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대학수

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내년 졸업 시즌 전까지 청소년 관련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술과 담배 관련 문제를 비롯해 PC방 야간출입과 졸업 전 아르바이트 구직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PC방은 PC방 야간출입과 아르바이트생 구인 문제와 직결된다. 문제는 사회가 인식하는 상식과 현행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이 서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매년 연말연시마다 청소년 야간 출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기해 이러한 분쟁은 극도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보법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지만, 게임법은 만 18세 미만의 학생신분인 경우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졸업을 하기 전 즉, 재학 중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보니 2000년생 고3 학생은 게임법에 따라 졸업 전까지 심야 시간(22:00~09:00)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고용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주간(09:00~22:00)에는 고용할 수 있으나 게임법에 따라 심야(22:00~09:00)에는 출입이 금지돼 고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2000년생 고3 학생은 1월1일을 기해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PC방 야간 출입은 금지되는 것이다. 결국 2019년 1월 1일 이후에 2000년생 고3 학생이 교복을 입고 PC방 흡연실에서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지만, 밤 10시가 되면 매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총리실 주관으로 부조리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의 입장을 고집해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내년 1월 1일 이후 2000년생 고3 학생의 PC방 야간 출입 및 술담배 구매 문제는 다시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 현재, 2000년생 고등학교 3학년 기준		
2018년 12월31일까지	항목/법령	2019년 1월1일부터
야간 (22:00~09:00) 출입불가	야간 출입 (게임법 2조 10항) (게임법 시행령 16조 2항) (초중등교육법 2조)	야간 (22:00~09:00) 출입불가
고용 불가	고용 (정보법 29조) (게임법 2조) (게임법 시행령 16조 2항) (초중등교육법 2조)	주간(09:00~22:00) 고용가능 야간(22:00~09:00) 졸업 후 가능
불가	담배구매(흡연) (정보법 2조)	구매(흡연) 가능 (흡연 부스 등 이용 가능)
구매(음주) 불가	술 구매 (정보법 2조)	구매(음주) 가능

[취재/ 육선민(진양고1), 정병훈(진양고1), 정민규(동명고2)기자]

[씨네통통] 영화, 살인의 추억 (Memories of Murder, 2003)

역대 최고의 한국 스릴러 영화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필통기자들과 그 친구들이 함께 오래된 옛날 영화를 한 편 선정, 함께 모여 그들만의 시사회를 가진다. 감상도 쓰고 평론도 하고 평점도 매겨본다고 한다. 그 네번째 시사회의 영화는 '살인의 추억' 이다.

美 역대 연쇄살인마 영화 6위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걸작중의 걸작이다. 히치콕과 핀처의 스릴러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범인과 형사의 기싸움이나 두뇌 게임이 없다는 것에서 기존 장르를 탈피한다. 대신 이 공간에 봉

준호는 당대의 사회상을 돌아보는, 말 그대로 80년대에 대한 '추억' 을 배치한다. 미국에서 선정한 역대 연쇄살인마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이 6위에 등극했다고 한다. 그만큼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살

인의 추억은 실화로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영화는 2003년에 개봉해서 약 525만 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했다.



살인의 추억 줄거리 (스포)

1986년의 한 시골마을에서 여성이 잔인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 성기 안에는 복숭아씨 9조각이 들어있었고 팔다리가 묶여 있었는데 이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다. 범인은 여자만 노린다. 비오는 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만 노리는 것이었다. 희생된 여자는 모두 팔다리가 묶였고, 강간당했고, 죽었다. 성기 안에는 모두 복숭아씨 9개가 들어있다.

송강호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형사. 김상경은 서울에서 온 과학수사대이다. 서로 맞지 않아 심심하면 싸운다. 범인이 노리는대로 비 오는 날, 여자 경찰에게 빨간색 옷을 입혀 잠복도 해보지만 범인은 걸려들지 않는다. 한편 송강호 밑에 있던 형사는 술집에서 난장판을 피운다.

그 가게는 바로 향숙아~로 유명한 박노식의 부모님이 하던 가게였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하는 가게에서 난장판을 피우던 그 형사의 허벅지를 녹슨 못으로 찌르고 형사는 결국 다리

를 자르게 된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사람이 박해일이다. 스스로 범인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박해일을 때리고 억압해서 강제로 범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나온 정액과 박해일 정액을 미국으로 보내 검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과학수사대는 두 정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범인은 잡지 못했다. 박해일은 풀려났다.

시간이 많이 지나 송강호는 사건 현장을 다시

찾는다. 아마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였을 것 같다. 사건 현장을 꼼꼼하게 보고 있자 한 소녀(정인선)가 다가와서 말을 한다.

아저씨랑 똑같이 어떤 남자가 이곳을 들여다 보았다고... 영화는 이렇게 끝난다. 봉준호 감독은 열린 결말로 영화를 마무리했는데 아마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그 범인도 이곳을 다녀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결말이 나온듯하다.

필통 시사회 평점



평균 평점 4.62점
★★★★★

참가자	감상평	기억에 남는 장면	추천하고 싶은 사람	평점 (5점만점)
구본승 (정보고)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 막바지에 송강호가 하수구를 뚫히 쳐다보는 장면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	5
김병하 (동명고)	80년대 형사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점이 인상 깊었다.	영화 마지막부분에 송강호가 스크린을 쳐다보는 장면	동명고 서현우	5
김동민 (동명고)	과도하다 싶은 서스펜스의 사용으로 볼때감과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볼래하지만 했다.	배광호가 못 박힌 방망이로 형사의 다리를 때리는 장면	열린 결말의	3.5
김동민 (동명고)	종심 스토리의 퀄리티는 당연히 굉장했지만, 80년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잘 재현해낸 것도 인상 깊었다.	영화 막바지에 김상경이 종이에 적힌 검사결과를 보고도 부정하는 모습	맛을 아는 사람	4
원지현	당시 진술조작이나 폭행을 일삼는 형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었고, 만약 지금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범인을 잡지 않았을 까 싶다.	송강호가 스크린을 응시하는 장면	영화 보려 안 온	5
류승현 (동명고)	범인을 못 잡은 게 아쉬웠다.	송강호가 하수구 구멍을 보는 장면	곽병규 기자	5
익명 (동명고)	청년경찰, 배태광 등 최근에 나오는 경찰영화와 달리 고전적인 경찰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배우들의 연기에 몰입감이 대단했다.	형사의 추측과 실제 사건이 맞아 떨어지는 장면	진주 동명고 학생	4.5
박현욱 (동명고)	시작부터 들어진 두 형사가 범인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돌이 점점 비슷해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현실이 너무 아쉬웠다.	동료 형사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을 때 눈빛이 바뀌는 송강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모든 사람	5

살인의 추억에 관한 FACT 5



- '살인의 추억'은 범인 체포에 실패한 형사(송강호 분)가 정면으로 카메라를 보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봉준호 감독은 "범인이 영화관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형사와 범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해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 영화에서 나오는 '밥은 먹고 다니냐'는 대사는 원래 대본에는 없던 것이다. 봉준호 감독이 연질을 쥐 송강호가 3일간 고심한 끝에 대사를 생각해냈다. 대사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으나 사실은 범인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밥이 넘어 가느냐'라는 의미로 묻은 것이다. 특히 형사들이 크게 공감한 대사라고.
-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하수아비에는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실원래 시나리오에는 '사지가 아닌 '자지'로 적혀 있었다. 당시 형사들이 답답한 마음에 실제로 세워놓았었다고, 박찬욱 감독은 이 문구를 제목으로 밀기도 했다.
- '살인의 추억'은 해외에서 역대 최고의 한국 스릴러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USA 공동경비구역'과 함께 "20년 동안 내가 본 영화 중 최고"라고 치켜세웠다.
- 봉준호 감독은 2013년 10월29일 '살인의 추억' 10주년을 기념해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그는 "범인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이 매체에서 다뤄지는 행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10년 만에 하는 행사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문을 닫고 신분증과 함께 모발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다소 소름 돋는 발언을 했다.

영화를 본 후.. 기자 생각?



Q1. 영화가 끝났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김단희기자 : 범인을 못 잡아서 너무 아쉬웠다. 누가 범인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원지현기자 : 역시 명감독이라는 수식어는 괜히 붙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Q2. 감독은 영화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나?

▶김단희기자 : 마지막에 용의자가 터널 속 어둠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통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표현 한 것 같다.
▶원지현기자 : 개인적으로는 8~90년대의 어두웠던 사회상을 당시 엄청난 이슈였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 조명하려 한 것 같다.

Q3. 조두순 출소에 대한 생각?

▶김단희기자 :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 번복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강한 형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원지현기자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화가 나는건 어쩔 수 없는거 같다.

Q4. 지금 내가 감독이라면 꼭 영화화 하고 싶은 소재?

▶김단희기자 : 2015노벨문학상

을 수상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책을 영화화 하고 싶다.

▶원지현기자 : 소재 자체는 기가 막혔지만 퀄리티가 못 따라가 준 영화 '베를 로얄'의 소재를 살려 더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다.

[취재/ 김단희(동명고1), 원지현 기자]

[맏칸년맏반] 진주고등학교 2학년 2반편

자유롭고 개방적이라 아무도 못 막는 우리 2학년 2반을 소개합니다

공부랑 운동 다 잘하는 문과 탐 2반. 반에 있을 법한 친구들은 다 있다. 단합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분위기는 참 좋다. 축구에 그다지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 신기하게 축구도 잘한다. 요즘 반에선 영화배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쉬는 시간에 영화 명대사들이 항상 울려 퍼진다. 다른 반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잘 생기고 매력적인 친구들이 넘치는 진주고등학교 2학년 2반을 소개합니다.





담임쌤~ 이은영 선생님

진고 최고의 수학 선생님이다. 수학 선생님이신데 특별하게도 문과 답임을 하고 계신다. 말썽 피우는 친구들이 있어도 항상 진심으로 잘 챙겨주신다. 그러나 자습 시간에 잠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때론 후덜덜~ 하지만 우리반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쌤~ 엄지 척, 이은영 선생님이다.

나의이상형 & 하고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동훈	팔방미인	거 내보다 나이도 어린 거 같은데
강진오	눈이 예쁘고 볼 살 있는 여자	반말하지 마라
권민재	키는 160에 11월 15일 생	진주고 축제의 하이라이트 여장 보러오세요!
김보근	귀엽고 연락 자주하고 듀엣 같이 부를 수 있는 여자	폐메 3시까지 가능!
김승민	날 책임져 줄 등직한 여성분♥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드립니다♥
김승훈	눈 웃음이 예쁜 여자	1년도 안 남았다...
김재희	피부 하얗고 나만 봐라봐 줄 여성분	우리 반 모두 마지막 입시생활 파이팅!
김정빈	쌍꺼풀 있고 누나 같은 여자	♪ Lay Your Head On Me - Crush
노주경	키 158 2월 12일 생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박근훈	착하고 귀여운 사람	Freedom~!!!
박명환	진양고 2학년 류태현 같은 여자	여친은 살빼고 사귀게
박웅비	말투가 귀엽고 행동이 귀엽고 목소리가 귀여운 느낌있는 여자	성주 아들 김준호
송윤화	같이 게임 해주는 여자	나홀로 놀기 꿀잼!
송인하	머리 길고 이쁜 여자	마지막 10대 화이팅!
송현민	웃음이 많은 여자	폐메 1시까지 가능
안준서	나보다 키 작고 웃는 게 사랑스러운 여자	명화니 여친 구함
이동협	귀엽고 피부 좋고 잘 챙겨주는 여자	자기가 어딴어?
이승학	♥	♥
이재호	웃을 때 눈이 이쁜 여자	폐메 2시까지 가능
이준희	단발이 잘 어울리는 여자	하지만 긴 생머리도 좋음 ㅎㅎ
임수중	딱히?	진고 축제 사회자 보러 오세요!
정성주	IU	♥
정우진	이승영♥	카톡x, 폐메x, 급한 연락 352-1445-5883-63 능협
정인영	섹시한 허창훈	저는 트롤이 아니라 메타연구자입니다
하승언	시크, 다정	~~~~~
황태원	대-성/마-이/맥	매력집 있는 여자
김준호	공감대 잘 맞는 여자	안녕~

멋짐폭발! 5반의 매력



이준희:진고 대표 괴물 래이퍼다. 진주에서 이 친구보다 랩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키도 꽤 큰 편이다. 우리 반 친구들의 도도 않는 드림에 잘 웃어주는 경향이 있다. 뭔가 억지웃음인 거 같다.

정우진: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친구다. 연한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진고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맨유 팬이다. 가끔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랑 연락한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쁨을 많이 받는다.

송현민:사천 서포 출신의 유학생이다. 많은 표정을 가지고 있다. 보기와 다르게 공부를 매우 잘하며 우리 반 부반장이다. 종종 귀 기울이게 하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낸다. 특히 펄티모 마냥 고양이 소리를 잘 낸다.

황태원:우리 반의 수문재이다.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린다. 본인은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 재능충이다. 특히 이 친구 어깨가 굉장히 넓다. 셔츠가 터질 듯하다.



노주경:하동 지리산 청학동 출신의 유학생이다. 말이 굉장히 많다. 투머치다. 근데 이상하게 학원에서는 엄청 조용하다. 학교에 간식을 많이 들고 온다. 책상에 당당하게 올려두고 잘 먹는다.

이재호:성격이 진짜 좋다. 반을 위해 봉사를 잘한다. 선생님들한테 엄청 예의 바른 착한 친구다. 보컬 동아리 소속이고 노래를 엄청 잘 부른다. 얼핏 보면 통통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아니다.

안준서:통통한 외모에 곰 같은 덩치를 가진 교회 오빠다. 노래도 잘하고 농구도 좀 한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가끔 수업시간에 갈굼을 살짝 당하긴 하는데 그래도 착한 친구다.

박웅비:미래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MC가 될 분이다. 함양 마천 출신의 유학생이며 우리 반 핵인싸다. 분위기 메이커에 끼가 굉장히 많다. 이번 축제 때도 MC를 본다고 한다. 함양 출신이라 친구가 없다. 진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김승민:둥글둥글하고 곱상하며 귀엽고 통통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되게 인기 많은 상이다. 귀도 복스럽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사복을 제일 많이 입고 온다. 그것도 맨날 맨날 옷이 다 다르다. 울~ 패셔니스타.

임수중:우리 반 반장이다. 공부, 키, 운동, 외모 안 가진 게 없는 친구다. 다른 애들 축구나 야구 볼 때 혼자 NBA를 더 잘 챙겨 본다. 뭔가 모르게 간지 난다. 말고 있는 직책이 많다. 이번 진고 축제 MC이기도 하다. 놀 땀 놀고 할 땀 하는 걸 또 잘한다.

김재희:항공 우주나 비행기에 관심이 많다. 하늘에 날아 다니는 비행기 엔진 소리만 듣고 무슨 비행기인지 다 맞춘다. 비행기 덕후 수준의 신기한 친구다. 나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랑꾼이다.

김보근: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든 옳다. 충신들이 많다. 그래서 보황이라 불린다. 축구를 엄청 잘한다. 자칭 진고 아자르다. 친구보단 여자를 더 잘 도와준다. 노래마저 잘하는 사기캐다. 첼시 팬인 게 단점.



권민재:자는 친구의 장을 잘 깨워주는 착한 친구다. 근데 가끔 보면 본인이 더 잘 잔다. 훈훈한 외모에 여자친구가 있다. 장수 커플이다. 축구도 잘한다. 단점이 있다면 가스가 많다.

정성주:비율이 좋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 공부도 꽤 한다. 근데 반 애들한테 갈굼을 자주 당한다. 보복을 하지만 웃으면서 다 받아준다. 선생님에겐 반항심이 있다면 가스가 많은 학생이다.

김승훈:이 친구의 드림을 이길 자가 없다. 항상 보면 게임만 한다. 매우 마른 몸매다. 본인은 다이어트한다고 보이면 잘 많이 먹는다. 근데 또 신기하게 살이 안 쪼들. 이래저래 신기한 친구다.

김준호:이과 반에서 넘어온 친구다. 착하고 친구를 좋아한다. 이 친구가 오고 나서 우리 반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바뀌었다.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이 자는 친구다. 누가 깨우더라도 하던 특유의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김정빈:잘생겼다. 대학 가면 바로 여자친구 생길 것 같은 친구 1순위다. 맨날 동료 시간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학교에 등장한다. 결박증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갈굼함을 유지하는 매력적인 친구다.

하승언: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친구다. 성격이 진짜 좋다. 여친이 생기면 진짜 잘 챙겨줄 것 같은 애 1등이다. 서양 사람들처럼 중후한 수염이 자라난다. 키도 큰 편이라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취재/ 김정빈(진주고2)기자]

[맏칸년맏반-신청] 진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9반

못하는 게 없는 엄친딸들의 교집합, 예뻐 만렙 1학년 9반!

얼굴, 성적, 성격, 태도 모두 빠짐없이 1등급을 받으며 진주여고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반입니다.^^ 아무도 9반이 뽀아 대는 매력 같은 매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상큼함으로는 이미 오래 전 모의고사 전국 1등 찍은 우리 반 친구들!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
강희진 선생님
진주여고 최고 미녀 선생님입니다.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태어나셨을 것 같은 천생 수학 선생님. 제자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내년에도 제발 우리 담임쌤이었으면 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마다 센스 넘치는 발언으로 아무도 졸지 않는 기적의 수학 시간을 만드시는 대단하신 분이시다.

나의 이상형 & hash tag!!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1. 권수민	권영진 쌤 같은 사람 ^^	#인생은꿀때 #필통일짱 #인스타중독말기
2. 권지우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주주 #물광피부 #샤이걸
3. 권해은	원재처럼 입는 시영이	#피어싱녀 #짜장면 #FCMM
4. 김경림	나랑 키가 15cm 차이 나는 남자	#김매직빈 #육촌 #얏니
5. 김민경	새우 잘 까 주고 싸가지 있는 남자	#Model #배동일제 #항상배고픔
6. 김보혜	훈 ♥	#보혜미안랩소디 #300번 #리퍼여신
7. 김세림	미국 사는 사람	#원조공주 #ENGQUEEN #현대판한석봉
8. 김채영	MINO	#또치 #이씨킬러 #이몽롱멋있다
9. 김태연	키 크고 보조개 예쁘고 동그란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	#눈썹 #haircut #모이라여신
10. 김하경	중석이	#멍멍이 #포그 #Alex
11. 김현지	손, 안경	#포토그래퍼 #미세여 #카감님
12. 단비	키 크고 귀여운 남자	#병아리 #단비거야!!! #ㅇ3ㅇ
13. 박가희	이민호처럼 다리 긴 남자	#정석여눈썹 #박문지기 #sns달달녀
14. 박소민	목소리 좋고 다정하고 리드 잘하는 남자	#진주여고선크립녀 #김세정달은꿀 #초음파공격
15. 심가은	여행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	#에코프렌들리걸 #만연니 #오성과학을
16. 양서현	새우 잘 먹여 주는 어깨 넓은 사람	#타임여신 #새침데기 #반1등
17. 양유진	용준이처럼 사는 홍딱이	#공주 #퍼플언니 #17번
18. 왕영인	잘생긴 뽀빠이	#왕반장 #대식가 #털털함대마왕
19. 이소윤	농구 잘하는 이환은	#우리반테너 #확성기 #진주여고마이클잭슨
20. 이승은	자상한데 유머러스, 옆에 있을 편한 남자	#만두 #글들리트리버 #칠암동흑곰
21. 이연우	김준규처럼 노래 잘 부르는 남자	#윙크공주 #구미원픽 #우나나나
22. 이유림	고기 구워 내 앞접시에 먼저 덜어 주는 장첸	#공주 #춤춤왕 #신세경달은꿀
23. 이유진	예쁘고 조신한 사람	#강하늘 #윙크왕 #기계춤
24. 이정은	밥 잘 안치는 남자	#요정 #드림랩 #웃음핀트이상
25. 장연수	영앤리창섭쌤한샘슨키호테	#연수누르기 #연수는 #숨구멍
26. 정혜경	참쌀떡 강매 잘하는 사람	#타이타닉연주자 #김광규 #군밤장수

개인마다 특성이 남 다른 우리반



왕영인: 9반 왕반장. 목소리는 확성기 수준으로 연수 깨우기를 맡고 있다. 반에서 제일 웃긴 개. 하이라이프 대식가로 위장이 세 개다. 눈이 진짜 예쁘고 크다. 본인 닮은 까칠한 고양이 모구에게 집사로 간택되었다. 손에 상처가 가득하지만 본인은 행복하다고 ^^



이연우: 방송부 차장으로 온 종일 학교를 뛰어다니는 바쁜 여자. 공부도 잘하고 활발한 분위기 메이커다. 센스 넘치며, 애교가 많아 그냥 하는 것이 귀여움의 결정체. 흥부자에 노래를 잘 한다. 노래만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참고로 실물이 더 예뻐.



이승은: 키도 쫄쫄하고 볼은 찹쌀떡 같고, 억울해 할 때랑 발끈할 때 제일 귀엽다. 가끔 버럭하는데 그것도 귀엽다. 아마 귀여움이 죄라면 애는 사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친구다. 모두의 귀여움을 받는 송랑동이 다.^^7



이유림: 피플파킹답게 춤 신총왕이다. 털털한 성격에 잘 웃고 유쾌이라 없으면 서운한 친구. 춤출 때는 섹시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예쁘다. 무대만 올라가면 반전매력 그 자체. 피아노도 잘 치고 음식도 예쁜 사기케 결정체.



이유진: 강하늘 닮은꼴로 시도 때도 없이 윙크를 하는 윙크왕. 수업시간에는 마주치면 무조건 사랑이 담긴 윙크를 받을 수 있다.^^ 학기 초 피해자가 여럿 나왔다. 키가 크고 예쁘게 옆드려 자는 모습이 더 익숙하다. 엄청난 금손 보유자. 미술 시간 최고 우등생.



이소윤: 문워크 장인으로 9반 마이클 잭슨을 맡고 있다. 매력적인 외모, 유쾌한 성격을 지녔고 건축학도를 꿈꾸며 무엇이든 파이팅 넘친다. 승은이 귀여워하기의 주동자다. 김민경 짝사랑 중이며 눈에서 꿀 떨어진다. 목욕광으로 365일 목욕탕에 살림 차려놓고 산다.



박소민: 자타공인 뇌가 섹시한 여자. 시험지에 비가 내리는 걸 본 사람이 없다. 김세정을 닮은 예쁜 눈이 매력적이다. 소심해 보이지만 엄청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여자 좋아하면 연락 GoGo~



김경림: 이름이 매직빈이고 별명이 김경림이다. 매직빈 싱크로율 100%인데 매직빈보다 귀엽다. 반웅이 재밌어서 자꾸만 놀려주고 싶은 1순위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의 모범 답안 그 자체다. 아무나 경림이한테 핑크색 통패딩 사 줬으면 좋겠다.



김보혜: 최애 노래는 '보혜' 미안 랩소디. 깨끗한 피부가 하얗다 못해 창백하다.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일주일에 네 번은 기본. 떡볶이 먹을 땐 업어 가도 모를 것 같다. 반에서 가시나 추는 거 보고 반한 사람이 한 트릭. 예쁜 여자는 다 짝이 있더라 남자친구 있음.



박가희: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조레 전까지 잔다. 액소 덕질에 인생을 던졌다. 하루에 한 번 백현한테 사랑 고백. 우울할 때 이어폰 꽃고 꽃을 가도 모를 것 같다. 반정만화 여주. 구준표를 사랑해 금잔디를 꿈꾼다. 이민호 제대를 손꼽아. 결혼은 이민호랑 한다고.



양서현: 타임 여신으로 뇌도 예쁘게 얼굴까지 예쁜 엄친 딸. 영인의 열렬한 구애를 받고 있다. 일방적인 사랑이다. 웃을 때 안 쓰러질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외모부터 지능까지 스캇이 사기급이다. 합창부 알토 원탑. 그러나 완벽한 서현이도 다 리핏하는 못한다.



김민경: 탑모델 민경이. 다리도 긴데 비율도 좋고 예뻐서 모두의 부러움을 산다. 특히 입술이 예쁘다. 반에 민경이 없애 다수 보유 중. 소윤이의 사탕을 온몸에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민경이는 가희를 제일 좋아한다. 매사에 긍정적인 해피 바이러스 감염자.



권수민: 교지부 차장. 김상철쌤 's 애제자.^^ 빛이 나는 솔로라 슬프다. 인스타 중독 말기. 눈썹 그리기 장인. 취미는 먹고 자고 쇼핑하기. 급식 두 판씩 먹다가 다이어트 선언 후 가희와 닭가슴살 먹방 중. 생기부가 소설급. 현직 필통 기자. 랩스타 하고 싶다.^^ @clicktomini



김태연: 주말마다 하루 종일 pc도랑에서 오버워치만 한다. 피시방 아니면 집이다. 피부가 하얗고 짙으며 단정한 눈썹이 예쁘다. 동그리 안경이 잘 어울리는 여자. 목소리가 피코리 같아서 계속 듣고 싶다.



이정은: 실험용 하얀 가운이 잘 어울리는 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고 자제. 카트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 단발머리 이렇게 찡찡한 사람 처음 봤다. 눈코입 하나 하나 봐도 그냥 예쁘고 예쁘다.

톡톡 튀는 데일리 9반!



작품명1
너가 누구야...?
연수:가 안 잔다고...?
설명: 조레시간에 자서 종레시간에 일어나는 연수가 안 자고 전 시 준비 중인 모습



작품명2
너네 생동이니~
설명: 유진이와 해경이가 똑같은 자세로 사이좋게 퍼질러 자는 모습



작품명3
민경이의 스트레칭 교실
설명: 민경이의 스트레칭 교실에 처음 등록한 왕반장의 스트레칭 모습

[이소윤의 진주여고 1학년9반 친구들]

[SNS 맛집 검증] 가좌동 김씨네 라멘트럭편

라면먹으러 일본 가려다 시간이 없어서 찾은 집!

먹방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SNS상에서는 맛있는 먹거리뿐 아니라 맛있게 먹는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명한 맛집들의 홍보와 후기들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필통에서는 진주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의 SNS에 유명한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곳을 직접 찾아 그 맛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경대앞 인기 맛집 쇼000를 가다!

길거리 음식의 계절, 겨울이 찾아왔다. 어묵 트럭, 순대 트럭, 곰창 트럭이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한다. 그 사이로 조금 생소한 트럭이 있었다. 바로 라멘 트럭이다. 승리의 아오리 라멘 먹방 이후 라멘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모든 게 꽁꽁 언 겨울,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여 주기엔 라멘만큼 적당한 음식이 없다. 진주에도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 줄 맛있는 라멘 가게가 있다.

홍대를 거닐다 우연히 본 라멘 트럭. 하루 스무 그릇을 파는 라멘 트럭 장사를 시작한 게 몇그제 같은데,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어느덧 번듯한 가게까지 열게 되었다. 필통 기자단이 쇼000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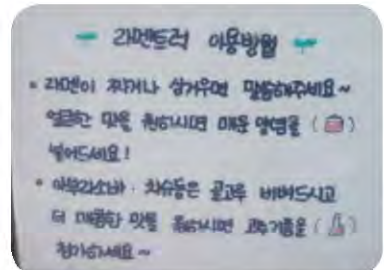


〈추억돋는 라멘트럭 시절〉

메뉴판

돈코츠 라멘	7.5	가오리	8.5	도핑류	1.5
돈코츠 미소라멘	7.5	미소라멘	7.5	계란수제(1개)	1.0
생 라멘 (국수-국)	7.5	미소국	7.5	계란수제(2개)	1.5
나기사키 라멘	8.0	미소국	7.5	계란수제(3개)	2.0
		미소국	7.5	계란수제(4개)	2.5
		미소국	7.5	계란수제(5개)	3.0
		미소국	7.5	계란수제(6개)	3.5
		미소국	7.5	계란수제(7개)	4.0
		미소국	7.5	계란수제(8개)	4.5
		미소국	7.5	계란수제(9개)	5.0
		미소국	7.5	계란수제(10개)	5.5
		미소국	7.5	계란수제(11개)	6.0
		미소국	7.5	계란수제(12개)	6.5
		미소국	7.5	계란수제(13개)	7.0
		미소국	7.5	계란수제(14개)	7.5
		미소국	7.5	계란수제(15개)	8.0
		미소국	7.5	계란수제(16개)	8.5
		미소국	7.5	계란수제(17개)	9.0
		미소국	7.5	계란수제(18개)	9.5
		미소국	7.5	계란수제(19개)	10.0
		미소국	7.5	계란수제(20개)	10.5

메뉴판에 설명과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어 고르기 좋다.



라멘트럭 이용방법이 손글씨로 적혀 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매운 양념과 고추기름을 넣어 먹으면 된다고 한다.

음식 또는 가게 사진을 sns에 올리면 살구쥬스를 준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옆에 있는 카페에 김씨네라멘트럭 영수증을 지참해 가면 5%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한다.

영업시간

open: am 11:00

close: pm 10:00

마지막 주문은 9시 30분이고, 브레이크 타임은 없다. 연중 3휴(1월1일, 설날, 추석 당일)라고 하니 사장님이 워크홀릭이라 할만 하다. (기자가 갔을 땐 자리가 충분했고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김씨네 라멘트럭 내부다.

입구와 마찬가지로 내부도 일본 느낌이 확실히 난다. 주방을 통유리로 해놔서 음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아서 좋고 자리마다 달려있는 전구는 사진 예쁘게 나오는 조명이야. 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혼잡하기도 편하게 만들었다.



김씨네 라멘트럭은 요리 전공자인 사장님이 독학으로 일본식 라멘을 연구 개발했다고 한다. 정통 일식라멘이라기 보다는, 우리 입맛에 맞도록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더욱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젊으셔서 감동했다. 대학생 알바인 줄 착각할 정도로 동안이다.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라멘을 먹을 때 여성을 배려하는 센스 있는 고무줄이었다. 수저통 옆에 머리가 긴 손님들이 머리를 묶을 수 있게 머리끈을 비치해 두었다.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또 이건 뭘지? 유자를 넣은 단무지는 정말 괜찮다. 짭짤 단무지에 유자를 넣은 듯한데 특이하고 꼬들꼬들 맛있다. 달콤 상큼하다.



계란은 두 개, 세개를 먹을 정도로 촉촉하고 찹찹하게 아지타마고를 잘 만드는 것 같다. 몇몇 라멘집에 가도 김씨네라멘트럭만큼 계란 맛있는 곳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소는 진주시 가좌길 64번길 5, 개양오거리 버스 정류장에 내려 다리를 건너서 가다보면 나온다. 진주에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씨네라멘트럭이다. 본래 한정판매하는 푸드트럭으로 유명했고 라멘을 팔았는데 이젠 경상대 후문에 김씨네라멘트럭을 오픈하고 그 후 확장이전과 카페까지 오픈, 지금은 김씨네라멘트럭에서 쇼000로 상호를 바꾼듯 하다. 상호는 일본어로 '초대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가게 문 앞에 서면 일본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문을 열면 벨이 울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다!

기자단 솔직 맛 평가

돈코츠미소라멘



12시간 이상 정성껏 우려낸 돼지 사골에 닭육수, 야채육수를 섞어 진하고 깊은 육수의 맛을 자랑하는 김씨네 라멘트럭의 가장 기본 메뉴다. 푸드트럭 시절에 돈코츠 라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겐 추억의 맛이라고 한다. 일반 반숙란이 아니라 아지타마고를 올려준다. (*아지타마고 : 일본식 계란 장조림)

권수민(진주여고1)기자 일반 돈코츠라멘은 느끼한데 미소가 들어가서 괜찮았다. 비치된 매운 양념을 한 스푼 넣으면 얼큰하게 즐길 수 있다. 토핑으로 올라가는 아지타마고와 차슈가 특히 맛있다.

민세연(제일여고1)기자 돈코츠라멘은 처음이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안 느끼하고 맛있었다. 매운 양념을 넣으니 매콤해서 좋았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짭 수 있으므로 조절하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면보다는 계란이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면, 차슈 등을 추가하는 옵션이 있으니 배가 안 차면 추가하면 좋겠다.

야끼소바

정민규(동명고2)기자 일본식 볶음면이라고 설명돼 있는 그대



로다. 일본 음식 특유의 달고 짭 맛이 강했다. 그러나 현지보다는 약하게 나와 좋았던 것 같다. 면이 특이해서 식감이 좋았고, 계란은 반숙으로 나와 더 좋았다. 야끼소바를 시키면 진한 돼지국밥 국물 같은 게 나온다. 국에는 별로 손이 가지 않았다. 일본에서 공수한 야끼소바 전용 면과 김씨네 라멘트럭 특제 소스의 콜라보. 야끼소바에 가스오부시는 흔한 토핑이지만 파래김가루는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파래김가루를 흔히 사용한다고 한다. 면의 식감이 독특하다 했더니 일본에서 공수해 오는 볶음 전용면이었다.

[취재/ 민세연(제일여고1), 권수민(진주여고1), 정민규(동명고2)기자]

[I'M FASHION PEOPLE] 오늘은 뭐 입지?

나를 표현 하는 것 & 내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10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 교복을 제일 많이 입게 된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교복이 아닌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패션을 코디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상의 경험이다.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주위 친구들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보았다. 나름 패션리더를 자칭하는 친구들을 어떤 옷, 얼마짜리 옷을 입을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오늘 뭐 입지?



최정업 (대아고 2학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박자를 맞추듯... 어느 한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자."

FASHION PEOPLE

정유빈 (진주제일여고 1학년)

"패션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TYPE 1



TYPE 2



- Q. 나에게 패션이란? 나를 멋지게 해 주는 것
 Q. 나만의 옷 입는 팁 그냥 무난무난하게 입는 게 제일 이쁜거 같아요.
 Q. 가장 좋아하고 애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무신사에서 옷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Q. 평소 옷 입는 스타일 엄청 무난하게 입어요.
 Q. 도전해 보고 싶은 스타일 귀여운 모자랑 모자에 맞게 스타일링!! 한번 해보고 싶어요.
 Q. 요즘 눈독들이고 있는 옷 요즘에 문수권 맨투맨 옷이 이뻐서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Q. 본인이 가장 아끼고 자랑하고 싶은 옷 빵모자...?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이 이쁘게 꾸미고 다녀요~

TYPE 1



TYPE 2



- Q. 나에게 패션이란? 하나 밖에 없는 취미이자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고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고 텡장을 만드는 것 Q. 가장 좋아하고 애용하는 쇼핑몰이나 브랜드 여러 브랜드를 좋아해서 무신사를 애용하고 블로그 마켓도 애용합니다.
 Q. 평소 옷 입는 스타일 대부분 다크웨어로 입지만 미니멀, 테크웨어, 스트릿, 올드스쿨 등 입고 싶은 대로 남 눈치 안 보고 입으려고 노력 중
 Q. 도전해 보고 싶은 스타일 그런지룩 도전 해 보고싶습니다 !!
 Q. 요즘 눈독들이고 있는 옷 요즘은 옷보다 신발에 빠져서 제 드림슈는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 옷에 관심 가질 때부터 아직 쪽 스피드러너가 드림슈예요. 무난하게 어디든 잘 어울릴 거 같아서 갖고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패션에 관심은 많지만 남 눈치가 보여서 못 입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남 눈치 보시지 마시고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지나가면서 멋있어서 자주 눈이 가거든요. 진주에서도 옷 잘 입는 사람들 많이 보고 싶어요 ! 인스타 171_yub 으로 오시면 더 많은 사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

[맏칸년맏반] 삼현여자고등학교 2학년3반편

이런 반이 또 어디 있나?!

삼현의 완소퍼펙트 3반 친구들~

유쾌!상쾌!통쾌! 언제나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3반 친구들~ 넘치는 끼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고 재치 있는 입담을 뽐낸다. 올해 유난히 인원 수 변동이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흘러내리는 친

화력으로 뽐낼 땀했다. 각자의 개성이 뛰어나지만 모두 조화롭게 어울려져 강력한 에너지를 뽐내기도 한다. 그 이름! 퍼펙트 2학년3반!



우리 담임쌤~ 김수희 선생님
그 누구보다 3반 친구들을 아끼시고 챙겨주신다.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의외로 소녀감성이 뽐뽐~ 넘치시는 분이다. 웃으실 때 시원하게 올라가는 입매가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나영	키크고 쌍꺼풀 있고 철든 남자	빨봉 사줄 사람
강윤정	눈이 예쁘고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성아 은영 수연 윤정 수윤 준서 지혜 정민♥
권예림	마음에 드는 사람	웃어?
권형은	양아치 같은 집돌이	정시맨
김미소	이조벽	벤츠주집 사랑해
김상은	주님을 믿는 남자♥	welcome to church
김소연	무쌍 아니면 무쌍 · ㅇ에 귀엽고 인성이 좋은 남자	(^~^)/v
문현정	♥듬직하고 키 큰 남자♥	맛있는 거 사 주세요
박다예	조신남	새송이 버섯
박경은	보조개에 빠져 죽을 정도로 깊은 보조개 소유자 (+잘생김)	떡볶이 먹으러 가자^o^
박수연	나 같은 키 큰 포라이	부자 되세요
서지원	날티나게 생긴 너드	집에 가고 싶다
신지원	크러쉬 닮은 사람	승건아 나는 고기
우정민	진짜 웃긴 사람	인생 날로 먹고 싶다
이승하	무쌍 아님 속쌍에 손 큰 사람	^o^
이현정	목소리 좋은 사람	우즈밀러 사랑해ㅜㅜ
정가은	승건아	WYMM♥
정민지	기타로 박민우 응원가 쳐주는 정성하	엽떡 사주세요..
정세희	보조개 있는 사람	번비 탈출 원해요
정유경	연봉 12억	씨부레
조어진	얼굴이 잘생겨서 뭘해도 잘생긴 사람	승건씨 밥사주세요
진현재	잘생기고 키 큰 사람	ELLE
최선미	나보다 키 큰 무쌍에 재밌는 사람	빨리 졸업 좀...
하예진	벌레 잘 잡는 잘생긴 의사	정시파이터.
한경연	센스있는 사람	자몽다ㅇ-ㅇ...
현윤지	엽떡 잘먹는 180	@luv_yunt
황정윤	키크고 나랑 잘맞는 웃긴 사람	ㅎㅎㅎ
김채영	개상에 매력있고 센스있는 사람	사실 서현진 그거 구라임ㅋ

반짝반짝 우리반의 매력둥이들!



황정윤 : 똑부러지고 조곤조곤 하지만 뽐하게 터지는 웃음포인트가 많은 친구이다. 수줍음이 많고 엘라스틴 광고를 찍어도 될 만큼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다. 보기 드문 성씨를 가져서 별명이 참 많은 편이다. 올해는 황진이라고 자주 불렸다.



조어진 : 3반의 왕언니. 강하다 이 언니. 재치있는 입담과 말랑말랑한 볼 살이 귀엽다. 목소리가 크고 “~했어예”라는 특유의 말투를 가지고 있다. 아담한 체구 때문에 마냥 귀엽게 보인다.



신지원 : 화음 맞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지만 잘 맞지는 않는다. 영동한 매력이 넘쳐나고 하얀 피부가 특징이다. 최근에 머리카락을 잘라 단발이 되었는데 단발이 찰떡이다.



강윤정 : 3반 쫄꼬미 반장이다. 목소리도 작은 편이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한다. 최고 테시벨 50정도. 하지만 이 점이 윤정이의 매력이다. 수준급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다. 영어교사를 꿈꾸는데 정말 짝이 올린다.



정세희 :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다. 큰 키와 예쁜 눈이 매력이며 완벽한 스튜디어드 샹이다. 수준급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 승무원이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이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특히 노는게 너무 귀엽다. 일명 잔디맘



한경연 : 우리 반 대표 지각대장이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 쌍꺼풀 없애는 개인기가 있는데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다. 웃는 게 참 이쁘는데 반달같이 휘어지는 눈웃음이 진짜 부럽다. 24시간 자는데 시험날에도 어김없이 잔다. 양갱아 그만자^^



김채영 : 2학년 중 유일하게 전과한 친구. 미술 전공 때문에 전과를 했지만 친화력이 좋아서 금세 많은 친구가 생겼다. 무쌍의 매력이 돋보이는 친구이다. 배우 서현진이 사촌이라는 점을 필통에서 처음으로 밝힘. 대박적.



박수연 :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다. 같이 토론을 할 때 상대팀으로 걸리면 정말 불리하다. 논리적이고 똑부러지지만 마음은 어린 친구이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지만 은근 포라이 기질이 있다.



문현정 : 3반 잠꾸러기 중 탑 3안에 드는 친구다. 문디야 일어나~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입도 동글 동글동글 너무 귀여운 친구다. 착하고 마음이 여린 친구이기에 반응이 재밌어서 놀리는 맛이 있는 친구다. 다 이터트를 한다며 점심을 안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놀려야 한다.



김상은 : 엉뚱 그 자체이다. 조용하고 느리지만 엉뚱한 귀여운 매력 있다. 제빵을 전공한 의 가끔 직접 만든 빵을 가져오는데 세상 꿀맛이다. 웃을 때 허허 거리며 웃는데 이 웃음이 정말 귀엽다.



이승하 : 3반 공식 손글씨 장인이다. 폰트를 내도 될 만큼 예쁜 글씨체를 가지고 있다. 친구들의 진로 고민에 마음을 담아 진중하게 써주는 편인데 글씨만큼이나 마음도 너무 예쁜 친구다. 속쌍꺼풀이 너무 예쁘고 앞머리 있는 단발이 정말 찰떡궁떡찰떡이다.



강나영 :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빨봉 떡볶이. 동글동글하고 예뻐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마른 편에 속하지만 본인은 살이 많다며 다이어트를 자주 한다. 예쁜 얼굴과는 다르게 정말 악필을 가지고 있어 놀라게 한다.



김소연 : 조용하지만 가끔씩 터질 때가 있다. 시무룩해 할 때가 정말 귀여워서 계속 놀리고 싶어진다.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라 그림도 정말 잘 그리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듯 하다. 3반 대표 개구리상이다. 개굴개굴.



정가은 :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예쁜 연애를 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는 친구다. 장난끼도 많고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유아 교육을 희망하는 친구인데 정말 찰떡이다. 도통한 입술이 매력적이다.



현윤지 : 목소리 나는 3반 반장이다. 완벽한 브이라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긴 속눈썹과 함께 눈웃음이 돋보인다. 5살 때 사진이 5초 전 같아서 자연미인이라는게 인증되었다. 영어를 정말 정말 잘해서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는 중이다.



진현재 : 삼현 패션동아리인 엘르 소속으로 늘씬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다. 길고 까만 속눈썹과 눈동자의 조화가 정말 매력적이다. 약간 어둡고 매끈한 피부가 건강미를 돋보이게 한다.

[맏칸년맏반-신청] 동명고등학교 1학년 4반편

개인마다 개성이 넘치고 단합심이 찢는 반. 진주동명고 1학년 4반을 소개합니다!

진주동명고 1학년 반 중에서 가장 포라이(?)들이 넘치지만, 그만큼 단합심이 찢는 우리 반! 청결함을 강조하시는 강재안 선생님과 개인마다 개성이

넘치는 멋진 포라이들이 모여 있는 저희 1학년 4반을 소개합니다!



담임/ 강재안선생님
비교우워! 청결함을 강조하시는 선생님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올리신다. 영어교사로도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모든 학생들의 진학 상담에도 언제나 '엄지 척'. 아자는 곧 성적임을 강조하셔서 아자 못배게 하기 신공을 갖추고 계신다. 그러나 가끔씩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나가 맛집투어를 해주시는 존데레 선생님입니다.

개인마다 특성이 남 다른 우리반



김동건:우리 반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친구이자 성실한 친구다. 가끔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쉬는 시간마다 박경민, 김용수, 주재우와 같이 노는 것을 보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업시간에 가끔 조는 모습이 보인다.



김민규: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 학기 초부터 수학 선생님과 케미를 맞추면서 수업을 이끌어 친구들을 많이 웃게 해준다. 가끔씩 정신이 이상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때는 그냥 착하고 성실하다.



김범연:우리 반의 만능 스포츠맨, 그러나 모쪼록 인생 17년째이다. 그만큼 여자친구가 필요해 보인다.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착한 친구이지만, 인성이 좋지 않은 친구를 멀리하는 정의파다.



김예찬:우리 반에서 가장 걸음걸이가 특이하다. 입술이 푹 튀어나와 있어 '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키는 작은 편이지만 불임성이 매우 좋아서 다른 반에도 친구가 많다. 가끔씩 이상한 드림으로 재미 또는 갑분싸를 선물한다.



노우현:우리 반 아니, 동명고 1학년 중에서 팔씨름 최강자다. 그만큼 힘이 강하고 덩치가 큰 친구다. 겨울에도 더위를 많이 타서 야자시간에 복도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가끔 보인다. 수학을 매우 잘해서 친구들이 질문하면 친절하게(?)답을 해준다.



박상현: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모두가 부러워 하는 친구다. 평소에는 착하지만 어떤 애가 반에서 계속 시고럽게 하거나 짜증나는 행동을 하면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처리(?)한다. 그만큼 다른 친구들을 신경 쓰는 친구이다.



박용상:훈훈한 인상의 소유자. 동명고 축제에 나갈 만한 엄청난 노래 실력까지 갖춘 친구. 자신을 뒷담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쿨하게 넘어갈 정도로 강한 멘탈과 인성을 갖추었다.



서지훈:우리 반 얼굴 담당이다. 물론 안 좋은 편으로 말이다. 자신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진심 ~ 길에서 보면 도망쳐야 할 정도로 친해지면 위험한 학생이다.



성환중:작년까지 촌에서 살았다. 구수한 사투리를 갖춘 친구다.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절'의 대명사다. 최근 어릴 때부터 친했던 여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들려서 힘들어 하고 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한다.



유재성:우리 반 대표 허장(허언 장인)이다. 이 친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말빨의 힘이다. 의외로 얼굴은 매우 귀여운 상이다. 자신의 꿈은 작곡가인데 노래 실력 또한 뛰어나다.



이상희:고음의 끝판왕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친구다. 한 번 웃으면 기본 5분 동안 웃고 있는 포라이의 면모도 있다. 근데 갑자기 정색하며 무서울 정도로 강한 포스가 느껴진다. 그러므로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꼭 하도록 하자.



장진산:동명고에서 역사를 제일 잘 아는 친구라 할 수 있다. 공부를 매우 좋아해서 항상 가장 늦게 하교한다. 친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촌촌거리다가 가르쳐주는 존데레 성향. 참고로 우리 반에서 그것이 가장 크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아니니...^^



조현성:우리 반 반장이자. 똑똑한 반장인데...하는 일이 없다. 선생님께 내용을 잘 듣고 2학기 시작 할 때 햄버거를 쓰겠다고 했는데, 4달째 감감무소식이다. 한마디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친구다.



주재우: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자지 않으면, 그 수업은 엄청 재미있거나 선생님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선사한다. 야구광으로 휴대폰을 보면 무조건 야구다. 필기를 잘 해서 친구들이 요구하면 잘 빌려주는 착한 심성을 가진 듯하지만 가끔씩 화를 많이 내는 이중 인격의 소유자.



천주영:키가 182다. 가장 키가 크다. 글씨가 웬만한 여자보다 예쁜 반전을 선사한다. 야구광으로 휴대폰을 보면 무조건 야구다. 필기를 잘 해서 친구들이 요구하면 잘 빌려주는 착한 심성을 가진 듯하지만 가끔씩 화를 많이 내는 이중 인격의 소유자.



최준혁:행동하는 게 가장 귀여운 친구다. 우현이와 함께 덩치 투툼이다. 투툼의 먹성은 가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유희왕을 매우 좋아해서 용돈을 받으면 치킨을 먹는 것 외엔 유희왕 카드에 올인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홍민재:키가 170을 갓싹 넘겨 그것을 품플렉스로 여기는 친구다. 자칭 메시로 축구를 할 때 상대를 압살하는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요새 많이 외로워서 여소를 받았지만 키 때문에 입구치를 당했다. 키가 작은 남자가 이상형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배배르 데이때 선생님을 위한 깜짝 선물~ 이벤트!>



<노우현 캐리커처. 1학년 4반의 일상적 필판의 모습에서~>



<버스에서 졸졸이 앉아 주무시는 분들.. 절대 설정이 아니라는^^>

우리 반 친구들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김동건	불임성이 좋은 여자	주재우 명정이
김민규	타임지 랭킹 1위 먹은 16세(17세)	찍사랑 4년째
김범연	도가 지나치게 예쁜 여자	사실 모쪼록 인생 17년째 찬밥 더운 밥 안 가립니다.
김예찬	키 160이하,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	나의 영두 같은 입술~
김용수	장난스러운 여자	천재 이상희
김철호	요리 잘하는 여자	카트라이더 장인
노우현	착한 여자	조금(?)덜치 있어요
박경민	사과주스 같은 여자	껌 주고 싶다
박상현	숨	저희가 대신
박용상	귀여운 여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준민	키 150대인 여자	기공 김성진 기능사 시험 붙어라
박휘현	ㅇㅈ	보고 싶다..
서지훈	나랑 닮은 여자	영화 볼 사람?
성환중	착하고 귀여운 여자	ㅇㅈㅇ
양지웅	ㄱㅂ	하아.....
유재성	키가 163cm인 여자	손뎌 잘 살고있나
이상희	감당 안 되는 여자	나는 왕이로소이다
장진산	감당할 수 있는 여자	365일 학교생활
조현성	떡볶이 잘 만드는 여자	스바라시~
주재우	머리카락이 긴 여자	김용수 바보
천주영	글씨 예쁘고 연락 잘해주는 여자	그 날....
최준혁	유희왕 장인인 여자	유희왕 카드 사고 싶다
최형균	김예찬 입술 같은 여자	배 만지지 마라
홍민재	연락 잘 되는 여자	발음이 새요

우리 반의 특색을 담은 장면! TOP3!!



<배배르 데이때 선생님을 위한 깜짝 선물~ 이벤트!>



<노우현 캐리커처. 1학년 4반의 일상적 필판의 모습에서~>



<버스에서 졸졸이 앉아 주무시는 분들.. 절대 설정이 아니라는^^>

[정리/ 천주영의 동명고 1학년 4반 친구들]

애들아, 생기부 왜 너네가 써?

생활기록부의 의미 변질 심각, 대책이 필요해...

학생들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책임감, 성실성 등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바로 생활기록부이다. 생활기록부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상황과 이와 관련된 환경 등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기록한 일종의 장부이다. 원칙적으로 교사가 모든 부분을 판단하여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시절 그 학생의 자질 및 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생활기록부로 판단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정작 교사의 평가가 담겨야 하는 생활기록부가 학생들의 손에 적히고 있는 것이다. 2차 교사가 끝나고 학기 말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활동 내용 및 느낀 점을 적어 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교사 참고용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직접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적어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몇몇 학생은 직접 불러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여주고 그 학생과 같이 상의하여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간다.

학생의 모습을 교사가 아닌 본인이 작성하게 되면서 그 생활기록부는 객관성을 잃게 된다. 정확한 관찰에 입각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 오로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생활기록부를 두고 동명이인의 생기부가 아니냐는 농담까지 할 정도다. 최대한 자신을 가리고 싶은 학과에 맞춰서 그 내용을 만들어 내며 글을 쓰는 모습은 생활기록부가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

사진을 보면, "생기부 잘 쓰는 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 글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게시글이 아니라 모두 학생들에게 하나의 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려진 글이다. 학생들은 이를 참고해 좀 더 나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한다.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직접 써주는 학원까지 생겨 수도권 학생들은 고액의 금액과 자신의 생기부를 바꾸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공정하고 정확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믿을 수 없는 생활기록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합격자를 가려낸다는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를 학생들이 작성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학교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입시제도의 개



선이나 생활기록부의 변질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

[취재/ 임수중(진주교2)기자]

학생들에게 똥 싸 권리를 허용하라!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불편한 진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짧으면 10시간, 길면 14시간,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서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어쩌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집만큼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 화장지가 없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위한 화장실 '휴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화장실에 갈 때, 무언가를 흘렸을 때, 코를 풀 때 등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 화장지다. 그런 화장지를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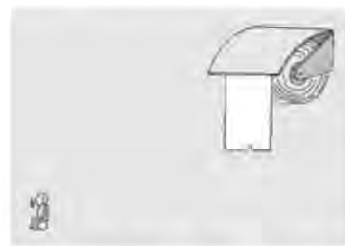
모든 학교에 휴지가 없는 것은 아니

다. 진주의 A학교는 화장실에 휴지가 아예 없고, B학교는 한 달에 두루마리가 2개씩 지급된다고 한다. C 학교는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휴지가 화장실 내에 없을 때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고 조사해본 결과, 어 모(18)씨는 "하루는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휴지를 빌려 다닐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라고 답했고, 임 모(17)씨는 "휴지를 빌려 다니며 자주 참다보니 번비가 생길 것 같다." 라고 답했다. 또한 남녀공학인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은 "휴지를 챙겨갈 때 민망하다" 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중앙고의 김모양은 '우리학교는 일주일에 하나씩 휴지가 배급되는데 서른 명 가까이 되는 여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며 '여학생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현상까지 겪는 것을 감안하면 휴지 한 개를 주며 일주일을 사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진주여고의 한 학생은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지를 배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학교 예산이 아닌가?'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동명고의 어떤 학생은 '휴지를 학교에서 지급하게 된다



면 학생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화장지 사용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또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며 화장실 휴지조차 학생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교육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에서 화장실에 휴지수를 제한하거나 비치를 제한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학생들이 휴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낭비하거나 휴지로 장난을 친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학생들 화장실 화



장지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생들의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가 문제가 된다면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맞다. 학생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휴지를 지급하지 않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취재/ 장은령(진양고1)기자]

보건선생님 어디 가셨는지?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는 퇴근, 그러나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일까? 대학 입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학, 영어교사?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진로담당교사? 그것도 아니면 맛있는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학생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정말 빼 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 바로 보건교사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교내 위생관리까지 담당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사고에 대한 대처이다.

학교는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에서는 보건교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응급사고가

났을 때 보건교사의 주도아래 응급처치를 잘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긴 사례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보건 교사가 없다면 어떨까?

진주시내 중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가 아예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았다. 학생수가 적은 시 외곽지역 학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양중학교, 사대부중-고, 진주외고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이 의외였다. 더구나 축구부, 씨름등 여러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정보고가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듯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다른 과목 교사가 보건 담당교사를 겸임한다. 수업과 보건관련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선 보건교사를 대신하기엔 역

부족이다.

또 방과후, 아자까지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생활한다. 안전사고가 밤에는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당연히 보건실이 일찍 문을 닫아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학생: "야자 쉬는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보건실 문이 닫혀서 집 가서 치료 받았어요"

—학생: "석식을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보건실을 갔는데 보건쌤이 퇴근하셔서 소화제를 못 받았어요"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전에 일찍 퇴근하는 보건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보건교사라고 해서 보건실에서 모든 일과를 보내지 않는다. 성교육, 위생교육 등 보건수업을 하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시험 감독으로 보건실을 비운다. 또한 교육이나 연수 등으로 학교를 비우는 일 또한 자주 생긴다. 이렇



때 보건실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학생들은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규수업이 끝나면 보건교사도 퇴근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으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생활 한다. 당연히 보건교사는 없다. 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과 후 저녁식사시간 전까지라도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취재/ 김정빈(진주교2)기자]

진주시 관내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개교	6개교
개양중학교/ 경상사대부중/ 금곡중학교 대곡중학교/ 명석중학교/ 문산중학교 반성중학교/ 지수중학교/ 진서중학교	경남정보고/ 경상사대부고/ 대곡고 진서고/ 경남예술고/ 진주외고

[동아리탐방] 선명여고 봉사동아리 인터랙트

가장 쉽게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알 수 있어요



〈인터랙트 동아리부장 김단 학생〉

Q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선명여고 인터랙트 회장 김단입니다.

Q : 동아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저희 동아리는 인터랙트라고 봉사동아리 인데요. 비봉로타리와 함께 같은 활동하는데 일본들과도 같이 교류를 합니다. 일본 친구들이 한국으로 놀러오기도 하고 우리 동아리에서 학생들을 뽑아서 일본을 가기도 합니다. 봉사동아리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기도 한데 실제로 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완전~ 많이 하는 활동적인 동아리입니다.

Q : 동아리 이름인 인터랙트에 대하여 소개해주세요.

A : 영어 스펠링으로 interact로 ‘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봉사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일과 중 동아리 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 하나요?

A : 작년까지는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인 엠마우스 노인요양병원에 주로 방문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이번년도에는 엠마우스 병원에서 고등학생을 받지 않게 되어서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외부기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강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학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Q : 인터랙트에서는 외부봉사도 한다던데 주로 어떤 봉사 활동을 하나요?

A : 외부 봉사 같은 경우에는 사천 완사천에 가서 새강 살리기라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거나 곤명면 마을에 가서 로타리 회원 분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립니다. 최근엔 연탄을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Q : 봉사활동하면서 생각하거나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 고등학교 올라와서 인터랙트란 동아리를



알게 되었는데 단지 봉사시간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즐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더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니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Q : 앞으로의 동아리 계획을 말해주세요.

A : 하고 싶은 일은 많죠.. 사실 비중이 컸던 엠마우스 노인 요양병원이 봉사활동에서 빠지는 바람에 올해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동아리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부원들끼리도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이렇게 선명여고 인터랙트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통 사랑합니다♥

[취재/ 하지영(선명여고1),
전규원(경해여고1)기자]



▲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급식봉사 하는 모습



▲ 일본 친구들이 공항으로 와서 인터랙트 학생들이 환영하는 모습



▲ 일본 친구들과 선물 교환하는 모습



▲ 외부 봉사 비봉로타리 회원들과 단체 사진



▲ 강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

아, 냄새 난다! 냄새!

코인노래방 위생상태 청소년 건강 위협 한다

학생들은 각자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가정불화 등 다양한 고민, 걱정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소한다. 그 방법으로는 폭식, 운동, 비행, 잠... 등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쉽게 다가오고 있는 해소법이 하나 있다. 바로 ‘코인 노래방’이다.

코인 노래방은 말 그대로 코인(coin, 동전)을 넣어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노래방인데, 한 시간에 약 10000원인 일반 노래방보다 부담이 훨씬 적어 학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소리를 질러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에 스트레스 해소에 딱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카운터조차 없어 위생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또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청소년을 제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특히 괴리한 냄새가 나거나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방치되는 등 위생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소에 많은 방(노래방 기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작은 공간에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는 물론 마이크 덮개가 없는 곳도 있다. 전주 시내 인근 코인노래방 4곳 중 2곳만 쓰레기통과 마이크 덮개가 구비되어 있었고 나머지 2곳은 쓰레기통이 없는 방이 많았다. 또 한 마이크 덮개가 없었고 덮개를 구하기 위해 주인을 찾아보았으나 직원은 찾을 수 없었다. 마이크 덮개가 없는 코인 노래방의 마이크에는 여러 사람들의 침 냄새는 물론 담배 냄새, 심지어는 술 냄새까지 나기도 했다.

평소 코인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는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마이크를 엉덩이에 비비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 코인노래방 알바생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쓰레기통에 마이크를 쑤셔넣어진 사진을 SNS에 올려 네티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코인노래방의 부스는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1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다. 좁은 공간의 가구, 각종 스프레이, 담배연기 등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주요원인이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오염이 매우 심해진다. 또 노래방의 특성상 침이 마이크는 물론 실내에 그대로 남아 세균이나 바퀴벌레의 서식지가 돼 호흡기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시로 환기하고 청소를 통해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방지 할 수 밖에 없을까? 청소년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불 보듯 한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마이

크 덮개가 있다고 해서 마이크 속의 세균이 100퍼센트 향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의 침이 된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단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마이크 덮개만이라도 제대로 비치하게 하고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면 코인노래방은 훨씬 위생적이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코인노래방을 찾는 학생들을 스트레스는커녕 건강마저 위협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재/ 하수진(사대부고2)기자]

반티,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입나?

야쿠자, 환자복, 죄수복, 이런 반티문화 문제 있다

체육대회의 달, 5월이 오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티로 무엇을 맞출지 의견이 분분해진다. 좋아하는 축구팀의 유니폼,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비싸지만 예쁜 한복까지 가지각색의 '반티'들은 청소년들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반티는 자연스럽게 학교문화, 청소년들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간의 소속감을 높여 주고 학창시절 기억될 즐거운 추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겉으로는 학급별로 단체복을 통해 소속감을 강화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자극적이고 튀는, 우스꽝스런 복장으로 남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변색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개성 있고 독특 튀는 청소년들의 재기 발랄함을 벗어나 튀어야 된다는 무리한 설정으로 상

식을 벗어난 의상 컨셉이나 디자인으로 반티의 원래 목적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 반티를 검색하면, '야쿠자', '정신병원' 등의 이름을 달고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반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 폭력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검은색의 가운데 일본풍의 용, 꽃 등의 그림을 그려 넣은 디자인으로 '야쿠자 반티'로 팔리고 있다. 또한 여러 색상의 환자복과 죄수복까지 아무렇게나 인기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반티문화는 '자유'와 '개성'으로 넘기기엔 조금 불편하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범죄자, 환자 등은 학생들의 반티 소재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죄수복, 야쿠자 복장 등은 입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상 자체로 범죄자를 희화하거나 범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모욕이 될 만한 환자복 역시 적절한 복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반티는 체육대회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실용적이고 활동에 편한 복장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용성면에서 문제가 되는 상식밖의 반티들은 체육대회와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실용성 측면이나 교육성 측면, 그리고 반티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봐도 조직 폭력단과 환자를 형상화 시키는 의상 등은 청소년들과 건강하고 개성 있는 반티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방관과 학생들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반티문화는 더욱더 변질되어 갈 것이다.

이번 여러분의 반티는 어땠나요? 개성 있



2018
BEST
기사

고 멋진 의상을 입고 하루뿐인 체육대회를 즐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물론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매년 쓰레기를 대량생산하는 청소년이 아닌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반티를 만들고 소통과 배려속에 자기 반만의 멋진 반티문화를 만들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취재/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학교에서 다치면 보상을 요구하자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의무가입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 책바퀴 같은 일상들이 반복해서 지나가며 약속된 시간을 채운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것만 같은 학교생활. 잔잔한 일상에 가끔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몸을 다치게 될 때다. 어쩌면 학교에서는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5월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야외활동이 많아져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간단한 상처야 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큰 부상이 생기면 부모님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일이 커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수술등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장기화 되고, 학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현실이 된다. 바로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이런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적절한 보상업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이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심사 후 보상한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란 교내의 운동 활동,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의 활동(동아리 활동 포함),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현장실습), 기타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자해나 자살, 불이행, 질병, 가해자가 존재, 등하교시 교통사고(자동차 사고로 접수)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담임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고가 난 후 학교에선 학교안전공제회에 학생 사고를 통지한다. 이후 치료가 완료된 후(중에도 가능) 학교나 학부모가 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학부모가 직접 청구 할 경우 한국안전공제중앙회(<http://www.ssil.co.kr>)의 자료실에서 공제급여청구서를 다운로드 한 후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14일 이내 심사후 지급하게 되고 이의가 있다면 보상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경우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외국인 학교 제외) 의무가



2018
BEST
기사

<교내행사때 손을 다친 J고 K군, MRI를 촬영하는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입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다쳤다면 지체 없이 선생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취재/ 광병규(진주고1)기자]

내 돈 어디갔어? 교내 절도범죄 대책 없나?

절도 예방 대책과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분명 범죄행위다.

절도, 이는 형법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이렇듯 절도는 법적으로 최대 10년 가까이의 실형이 내려지는 큰 범죄지만 이런 절도를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절도죄에 무감각하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듯 보이는 절도 행위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 빈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교내 설치된 CCTV를 한 번 살펴보자. 요즘 학교내 절도를 예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CCTV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 CCTV는 각 층의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경우 교실내부를 비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CCTV 자체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화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도 있다.

학교내 절도가 결국 피해자와 범죄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점이 절도 사건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범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 학생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피해학생들과 범죄학생에게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억울한 학생을 만들 수도 있고 밝혀진다고 해도 계속 같이 생활해야 하는 관계

라는 어려움이 뒤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교측이나 교사들이 절도범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S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주하며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무인 매점 운영 중에 있는데 절도사건이 거의 없다고 한다.

무조건 CCTV를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도 중요한 만큼 최소화 해서 적어도 학생들의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CCTV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덮고 쉬쉬하기 보다는 해당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나름의 학교내 절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었으



2018
BEST
기사

면 한다.

물론 사소한 절도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하는 학생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절도가 생길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학교의 범죄 방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분명 빈번히 일어 나고 있는 일임에도 절도를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학교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취재/ 정익찬(진주고2)기자]

오작동으로 아무 때나 울리는 화재경보기

학교에 울리는 오작동 사이렌, 실제상황이면 어쩌나!

뉴스에서 큰 사고를 접할 때면 어김없이 뒤따르는 말이 있다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고 정해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평상시에 '안전불감증'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까?

그 실제 사례를 어처구니없게도 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들이라면 수업 중 갑자기 위급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화재경보기 사이렌 소리다. 그러나 학교에서 경보기 소리를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본적은 아마도 거의 한 번도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학교가 달라도 학생 대부분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L 학생: 수업 중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

가 들리는데 선생님께선 복도를 내려 보거나 상황파악을 하시는거냐? 괜찮으니 앉으라고만 하셨어요.

*J 학생: 처음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땐 누가 장난을 쳤나 보다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불이 났나? 하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K 학생: 화재경보기에서 사이렌 소리는 자주 들리는데 막상 우리는 대피를 하지 않으니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불이 나지 않았는데 사이렌이 툭하면 울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따른 안이한 대처가 또 한 더 큰 문제가 된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실제상황처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된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학생들 역시 경보

기에 민감해 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호들갑이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다.

그렇다면 화재경보기는 어쩌서 자꾸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경보기나 무더운 여름철 높은 온도·습기·먼지 등이 경보기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기적 점검과 꼼꼼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재경보기는 감지기에서 연기 또는 화재가 감지되면 발신기에서 수신기로 그 감지를 보내게 되고 그것을 수신 받은 수신기가 표시기 기록하여 음향 경보기가 움직이는 원리인데 감지기의 설정치가 노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여 오작동을 일으킨다.

결국 지금 학교에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을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빈번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말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최신 경보기 설치의 물론, 만성이 되어버린 학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들 모두 그 심각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취재/ 양영진(대아고2)기자

비 오는 날, 양말을 사수하라

전교생이 젖은 양말을 말려야 하는 현실은 두고 볼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비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등교를 해야 한다. 아마도 비가 오는 것을 반기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끔찍함, 높은 습도, 불쾌지수를 떠올리기도 하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불편은 양말이 아닐까?

학교에 도착하면 건물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채 각자 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문제다. 우산을 들고 가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복도에 물이 떨어진다. 신발을 벗고 교실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물 웅덩이에 발을 담그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젖는 게 싫어서 나 몰라라 하며 신발을 신고 교실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들 때문에 바닥은 더 엉망이 되고 더럽혀진다. 교사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학생들에게 바닥이 더러워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다그치지만 그때 뿐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의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

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몇몇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교직원들 외에 학생들을 위한 신발장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다. 비 오는 날의 젖은 양말의 그 찝찝함은 오로지 학생들 몫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있을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현관 입구에 신발장을 만드는 것이다. 비 오는 날, 양말 젖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시린 발로 차가운 복도를 걸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발장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발장 설치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혀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선책으로 입구에 우산 비닐커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우산의 빗물은 해결할 수 있지만 엄청난 비닐 쓰레기가 반복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해 예산낭비도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교육현장에서 환경

을 오염시키는 비닐과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한 적절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은 건물 현관 입구에 우산 쪼아를 만드는 것이다. 학급마다 분류해 놓는다면 부피도 줄이고 열쇠로 잠겨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적다. 그리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없다.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은 그냥 참아야 되는가? 그냥 양말은 젖고 알아서 말리고 맨발로 있으란 애기가? 말로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하지 말았으면 한다. 전교생이 젖은 양말을 말리며 맨발로 다니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신발장 공간을 확보 하던지, 아니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는 결코 좋은 학교가 될 수 없다. 하루빨리 걱정 없이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취재/ 진가희(진주중앙고1)기자]

등하교 복장은 학생다워야 한다?

체육복 등하교를 허하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복이 있다.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교복차림이고 학교마다 그 등 학교시 복장에 대한 규정도 존재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러한 복장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왜, 꼭 교복을 차려입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학교와 교사들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것이 '학생답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복 이외에 체육복도 있고 생활복도 있는데 자신이 선택해서 편하게 입으면 되는 것이지 꼭 교복이어야 하는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여기서 학생들과 교사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체육복 등하교문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A(18세):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한다고 해서 문제 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등교는 아니더라도 학교는 편하도록 체육복 입는 걸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주시 관내 한 고교 교사에게 학생들의 체육복 등하교에 대해 물어 보았다. 대답은 단호했다. "우선 줄게는 안보조. 체육복은 체육시간에 입는 옷이지 교복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편하게 입으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 규정에는 원칙 상 체육복 등하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체육복 등하교 요구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도 물었다. "학생들이 규정에 불만이 있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각 반의 반장이나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러나 학생은 규정을 따라야죠. 복장규정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대부분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크게 대조를 이룬다. 실제 진주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10곳 중 체육복 등하교가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체육복 등하교시 적발될 경우 벌을 받는 학교도 있었고 생활기록부 운

운하면서 복장 단속을 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 광경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여고에서 '3학년 체육복 등·하교 허용해주세요'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뻗뻗한 셔츠와 허리·배를 조이는 치마가 수험생의 피로감을 높인다"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교만이라도 편하게 입고 교문을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게 문제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학생들은 멋을 부리고자함도 아니고 반항하기 위한 도구로 학교의 복장규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학생들이 입는 옷 정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결같이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차림이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요만 해서 될 일인지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모



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취재/ 전수민(진주중앙고2)기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건축학과를 찾아서

인간과 자연을 위한 창의적 종합예술 가장 오래됐지만 미래 유망학과인 이유다



〈경상대 건축학과 학생회장 한성빈〉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고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2학년 한성빈이라고 합니다.

Q.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랑 차이점이 뭔가요?

= 건축학과에서는 건축공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공학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건물의 도면을 그리는 것

이 중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왜 건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 건축학과와 공학과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건축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 성격상 구상하고 설계도면을 그리는 창조적인 작업이 더 어울릴 것 같았어요. 물론 공학도 공부를 하고 싶긴 합니다. 완전 분리되는 학문이 아니니까요.

Q. 건축학과 졸업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아직 2학년이라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지만 졸업 후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에 들어가 견습생으로 열심히 배우다가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건축사 시험공부를 해서 건축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왜 건축학과는 5년제인가요?

= 건축과도 처음에는 4년제였는데 다 5년제로 바뀌었죠. 아마도 배워

야 할 학문이 많아서 일거예요. 건축분야 이외에도 컴퓨터나 디자인 쪽으로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건축만큼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도 없을 겁니다. 또 지금은 5년제를 나오지 않으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 대학 공부에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학기마다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모형과 설명하는 판넬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작업이죠. 거의 몇 일 밤을 꼬박 뜯는다고 지내다 보면 '힘들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Q. 건축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꿀팁이 있을까요?

= 저는 딱히 그렇다 할 것이 없지만 저희 학과 선배들 같은 경우는 건축물 전시회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자소서에서 썼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AI시대, 로봇이 건물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 건물설계는 기계들이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은 창조적인 작



업이고 예술적인 과정이 될 수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건축 자재들은 기계들이 깎고 시공들도 기계들이 할 수 있지만 건물설계는 인간이 살 곳을 상상 하는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 대처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Q. 건축물을 설계하다가 다른 사람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실 그런 일이 빈번한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더 어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잘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Q. 경상대 건축학과 입시는 어떤가요?

= 저는 100프로 수시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2.8등급 정도에 들어왔어요. 보통 3.5 정도면 무리없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학과는 간혹 7등급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적보단 다양한 활동이나 자소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저희과는 처음에는 사실 많이 힘들고 자퇴생각까지도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견디면 점점 흥미가 생기고 재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또 학과 특성상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밖에 없어서 큰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저희 과 강추합니다.



〈설계와 모형제작 작업 모습〉



◀〈경상대 건축학과, 농촌 집 고쳐주기 자원 봉사활동〉

농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다솜복지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농촌건축학회가 지원하는 사업. 건축학과 강석진 교수와 학생들은 2011년부터 해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경남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학과 이것만은 알자

설계에서 완공까지 가장 인문학적인 이공계학과

“건축가는 건물을 매개체로 대중과 소통하는 직업이다.”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외형은 물론, 오가는 사람들의 생활도 바뀐다.”며 “건물을 짓는 기술뿐 아니라, 건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건축가가 될 수 있다”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 건축의 특성에 따라 건물설계와 디자인은 물론, 역사·철학 등 인문학, 예술과 사회학까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친다. 다양한 학문 영역을 넘나드는 건축학과와 특성 때문에 건축학과 소속 단과대학도 학교마다 공과대학, 예술대학, 도시과학대학 등 다양하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차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비교할 때 이해하기 쉽다. “건축학과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양성한다면, 건축공학과는 각 악기별 특징을 정확히 알고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악사를 길러내는 학과” 즉, 건축학과와 교육과정은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 단계를 총괄하는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배우는 것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음악 전체를 이해하고 소리의 조화를 이끌어 내야 하듯이 건축학과가 양성하려는 건축가도 건축의 전반을 이해하고 각 분야를 이끌 수 있

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건축학과와 수업 구성도 건축공학과와는 다르다. 건축공학과는 수학·물리·화학 등 이공계 기초학문으로 이론을 다지고, 건물을 이루는 구조와 설비 등을 완성하는 기술을 익힌다. 이에 비해 건축학과는 기하학·수학 같은 학문은 물론, 디자인과 예술, 세계건축의 역사와 문화, 인간형태 등 사람과 사회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전공 130점 들어야 졸업. 커리큘럼 거의 같아

주요 대학 건축학과는 거의 5년제로 짜여 있다. “우리나라가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되면서 의사·변호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게 했고, 건축사 자격증과 관련 교육과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5년제로 개편됐다.” 건축학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5년제 건축학과는 현재 전국 70여 곳에 이른다. 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5년간 공부한 뒤 실무 경력 3년을 쌓아야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실무 3년 거쳐야 자격시험 응시 - 건축사와 방송,영화계 진출도

건축학과는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5년제 커리큘럼을 이수한 뒤 3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학과에서 6년간 공부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의사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 중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도 적지 않다. 건축사 이외의 다른 진로를 개척하는 이들이다. 50% 정도가 건축사로, 나머지는 창업을 하거나 문화·예술공연 기획자, 기자, PD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역량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협업의 산물이다. 건축가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들이 건축가라는 직업에 주목하는 것도 최근의 일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은 남자의 전유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여성 특유의 감성과 공감능력이 건축가에게 필요한 자질로 각광받으며 여학생의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쌓아야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



는 곳은 삼우·희림·간삼 등 건축설계사무소나 대기업의 시공사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건축공학과 졸업생이 취업한다고 알려졌지만, 건축학과 학생들도 건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취업이 가능하다.

광고·영화·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획자로 진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신문기자나 방송 PD로 취업하는 졸업생도 적지 않다. 건축의 과정이 기획과 비슷하다면, 여러 사람과 협업을 통해 최상의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건축가의 업무 특성은 방송 PD나 영화감독과 닮았다. 학교 교수들은 건축학과에서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어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며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다고 말한다.

[취재/ 김수현(사대부고1), 김서영(경해여고1)기자]

[JOB을 잡아라] 한국드론박물관 손운재 관장님을 만나다

머지않은 미래직업! 드론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하늘을 수놓은 드론 요리기, 모두 기억하시나요? 1,218대의 드론을 조종한 것은 단 한 명의 조종사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드론이 꼽히면서 드론 전문가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직업 드론 전문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문산에 위치한 한국드론박물관을 찾았다.



〈한국드론박물관 손운재 관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한국 드론 박물관을 운영하는 관장 손운재입니다.

Q. 한국 드론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A. 저희 한국 드론 박물관은 드론 국가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mbc, kbs 등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항공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드론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드론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드론

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갈수록 드론을 활용한 사업 분야는 확대되고 있어서 활동 분야는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드론과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드론이 원래는 군사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드론이 취미생활로 상용화되자 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드론의 세계에 빠져든 거죠.

Q. 드론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우리나라 드론 체계에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인 인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관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Q. 국가 드론 자격증 시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재는 학과 시험을 치고 그 다음 실기 시험을 치야 해요. 실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전에 비행 교육원에서 20시간의 비행시간을 이수해야만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난이도는 20시간의 비행시간을 이수한다면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Q. 드론 가격을 얼마 정도 되나요?

A. 드론은 천차만별이죠. 가격 또한 2만원에서부터 2천만원까지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중국산은 안 좋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드론은 가장 성능이 좋은 것도 중국산, 가장 좋지 않은 것도 중국산입니다. ㅎㅎ

Q. 아직 드론은 생소하기만 한데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ㅎㅎ

A. 수입은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하하) 일단 현재 저희 교육원 수강료는 200만원인데, 비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죠.

Q. 대학에 드론 관련 학과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A. 네, 지금은 많이 있어요. 드론 학과에서는 일단 항공기의 기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운용에 관련된 것, 자격증 취득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Q. 드론으로 할 수 있는 활동분야들은 어떤 게 있나요?

A. 굉장히 다양합니다. 당장 저희가 하고 있는 항공 촬영, 교육 분야, 방제 등은 기본이구요. 머지않아 배송 서비스도 사용될 것이고, 두바이에서 상용되고 있는 드론 택시 등도 점차 가능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드

론 택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령상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운용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죠.

Q. 드론 교육을 받는 연령층은 어떤가요?

A. 지금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아요. 다음으로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Q. 드론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드론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드론이 미래에 얼마나 더 큰 가치가 될 지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핀란드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에어택시는 드론 기술에 기반을 둔 비행체인데, 두바이 당국은 2022년 에어택시 상용화와 함께, 연간 20여 조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드론 전문가! 그 궁금증?

드론이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다. 25g부터 1천200kg까지 그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으로 처음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저렴한 레저용품으로 재탄생 돼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드론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에 대한 지식과 조종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관련 법안 등을 준수하며 정보를 수집하거나 무언가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드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드론 관련 장치신고와 사용 사업업체 그리고 조종 자격증 취득자가 모두 증가했다.

그럼 드론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비행 전 드론의 상태를 확인하고 배터리, 조종 면의 작동 여부, 주파수,

GPS 수신, 촬영 장비의 부착 상태 등을 점검한다. 조종사는 드론의 움직임을 직접 보면서 조종하는 시계 비행에서 리모컨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해진 입력값에 따라 드론이 비행의 경우 비행경로 등을 지정.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체험교실, 드론 과학교실 등 드론 조종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드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역량이 있어야 할까?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관련 면허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는 FAA로부터 부여받은 소형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증(small UAS pilots license)이 있다. FAA 영공 규정에 대한 지식, 상업용 드론(commercial drone) 소유·작동 경험, 드론 비행 기법에 대한 실무적 지식, 촬영 사진 이미지 처리·편집 경험 등이 있다면 드론 전문가라 말할 수 있다.

좋은 드론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드론 분야는 특성상 독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조종, 촬영 등 직접 컨트롤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상당히 날 수밖에 없다. 전국 여러 곳에 드론 교육기관이 있다. 하지만, 드론 교육기관에서 배웠다고 드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 만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진로를 드론 정비 쪽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드론 교육은 단순히 획일적인 드론 조종만을 배운다면 과연 제대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을까? 앞으로 드론 분야는 더 세분화 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발맞춰 드론 전문가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이 융합된 이 시대에 드론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 단계는 '당장 상관없어 보이고, 자신은 쓸 일이 없는 지식'이라도 드론이라는 비행체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학지식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

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드론을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보인다. 이미 드러난 시나리오 말고, 자신만의 디테일이 생기면서 드론의 어떤 점에 집중해서 파고들어야 하는지 시작점을 알게 된다. 실험과 적용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만의 드론 세계가 구축되게 될 것이다.

드론 전문가가 되었다면 드론 제작 및 교육 업체, 드론 촬영이 필요한 방송국, 영화사, 영상제작 전문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업, 건설과 토목업, 공공 안전 분야, 물류업, 통신업 등에서도 필요한 인재다. 2017년 6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국내 드론 활용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농업 콘텐츠, 측량·탐사, 건축·토목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드론 사업체가 활동 중이라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드론은 군사용 정찰 드론, 농업용 드론, 항공 촬영, 택배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미팅] 캐나다 유학중인 지해인 필통 명예기자를 만나다

알레르기 때문에...

캐나다의 학교에선 견과류가 반입 금지!



이번호 <글로벌미팅>은 캐나다편인데, 진주에 살고 있는 캐나다인이 아니라 현재 캐나다에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을 통해 캐나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인터뷰에 응해 준 지해인씨는 2014년부터 2년동안 필통기자로 활발히 활동했었고 2017년 삼현여고를 졸업한 후 현재 캐나다 캘거리에서 유학중이다. 엔지니어가 꿈인 그녀는 23살 안에 아프리카 여행가기, 25살안에 몽골가기, 30살 안에 5개국어 마스터하기가 목표라고 한다. 그녀가 들려 준 캐나다 이야기다.



Q. 청소년들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은 어떤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덜 경쟁적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평가인 여러 나라와 달리 절대평가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학업 달성률에 따라 점수가 결정됩니다. 공이 등수가 중요시되는 분위기도 아닐뿐더러 등수가 공개되는 학교도 적어요. 학교가 끝난 후에는 보통 학교 동아리 혹은 외부 서클에서 운동을 하거나 개인 취미활동을 합니다. 이따금 러닝 센터 (learning center, 일종의 학원 같은 교육 지원 센터)에서 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학생도 있지만 단기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Q. 캐나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궁금합니다?

어느 곳과 다를 바 없이 이성친구가 생기면 데이트도 하고 학교에서는 같이 도시락도 먹어요.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성생활에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입니다. 게다가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르면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보통 11학년 (고2)부터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캐나다의 학생들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운전을 배우고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목적 시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운전이 능숙하다면 가까운 국립공원이나 근처의 쇼핑몰로 운전해서 데이트를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Q. 현지에서 느끼는 K-pop 한류?

얼마 전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 라디오에서 여러 번 BTS의 노래를 틀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 간간히 언급이 되는 정도예요. 2012년 강남스타일로 이슈가 됐던 싸이는 여전히 유명합니다.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이목을 끌기도 했지요!

Q. 자신이 느낀 한국과 다른 best 3를 꼽자면?

첫 번째는, 캐나다에서 사이더 (Cider)는 과일, 주로 사과를 발효시켜 만드는 알코올성의 음료예요.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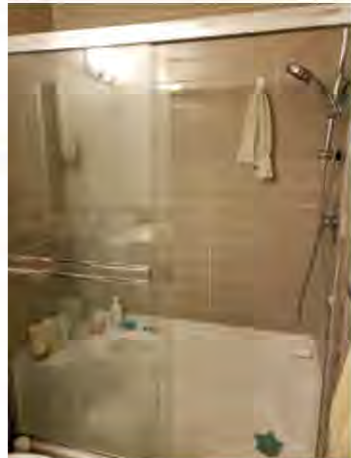
연히 펍(Pub)이나 주류매장(Liquor Store)에서 성인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사이더는 탄산이 있는 레몬에이드로 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약 캐나다에서 사이더를 마시고 싶다면 스프라이트를 주문하길 바래요! :)



<캐나다의 사이더는 술이다. 당연히 청소년은 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 바닥에 작든 큰 배수구가 꼭 있는 데요, 캐나다에는 화장실 바닥이 그저 타일로만 만들어졌을 뿐 대부분 배수구가 없어요. 그래서 욕조가 있

는 화장실에는 기본적으로 샤워커튼이 필요하고 욕조가 없다면 부스형식의 샤워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캐나다 화장실 바닥엔 배수구가 없다. 무조건 샤워커튼이 있는 이유다>

세 번째는, 급식이 보편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도시락을 먹습니다. 단체 급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

에선 학생들이 간단한 점심을 싸가지고 타닙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인 만큼 도시락 메뉴도 다양해 중국계 아이들은 중국식 야채볶음이나 볶음밥 등을 싸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한국계 아이들은 김밥이나 유부초밥에서부터 한국식으로 밥과 간단한 반찬을 싸오기도 합니다.

Q. 캐나다의 먹거리는 어떤가요?

15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오는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는 캐나다 고유의 음식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감자튀김에 치즈를 얹고 가리비 소스를 뿌린 '푸틴' 이 전부예요. 음식 가격은 한국과 비교하면 좀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다민족 국가답게 세계의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어요. 저렴한 편인 감자탕 한 그릇을 먹으려면 음식값이 C\$9에 텍스와 팁까지 내고 나면 한화로 13,000원 정도는 내야 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도 1만 원이 훌쩍 넘어요.

알쓸신잡! 캐나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

땅콩주의보, 학교엔 견과류 반입 금지

캐나다에는 다양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학교들이 '견과류 반입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모르고 견과류를 먹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견과류가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캐나다에만 있는 것들!



· TIM HORTONS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커피전문점이에요. 1500원 정도면 갓 내린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맛보실 수 있어요. 큰 동네에는 꼭 하나씩은 만날 수 있습니다.^^

· MAPLE SYRUP

단풍나무에 관을 연결해 한 방울 한 방울 채취한 물을 끓여서 만드는 메이플 시럽은 캐나다에서만 맛보실 수 있어요. 맛은 한국의 조청과 비슷한데, 이곳에서는 아침 식사로 와플을 먹을 때 많이 뿌려 먹죠.



· ALL WAY STOP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교통신호예요. 모든 방향의 차가 서서 한 대씩 가라는 사인으로, 처음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통신호였죠. '저렇게 한 대씩 가니 차가 막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캐나다인들은 이 사인이 익숙하기에 신호등이 망가지는 일이 있을 때는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없어도 한 대씩 차례대로 가기에 교통체증이 덜 발생한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 12.

캐나다에서는 만 12세가 되어야 아이들이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만약 12세 이하의 아이가 혼자 집에 있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면 주변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간주하죠.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 거리에 있으면 주변에서 "몇 살이니? 엄마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답니다.

큰 형제자매가 동생을 봐주려고 해도 16세 이상이 되어야 보호자로 간주한다고 해요. 만 8세 이상의 아이는 차에 혼자 두어도 되는 퀵백을 제외하고는 12세 이하의 아이를 차에 두고 잠시라도 나가서는 안 된답니다.

[취재/ 광명(진주교1), 김동민(동명고1)기자]

To. (삼현여자 고등학교 1-8반) 일팔이들에게♥

안녕 일팔이들아!!!!!! 우연히 기회를 얻어 미국에서 이렇게 써보네!!! 너네는 필통 열람히 챙겨 보니까 내게도 쉽게 찾을 수 있을꺼라고 생각해서 쓴다.^^

비록 내가 반년만 있다가 떠났지만 너네는 나의 최고의 2018년 선물이었어! 첫날에 오후부터 둘째 날 부산 오후에 어색 할때 왕창 먹었던 게 잊고계셨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붙어 있으면서 너무 금방 친해졌다. 그리고,

체대 꼴등은 체부였던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반가대환가? 노래부르는 거 만큼

은 꼭 좋은 성과 내길 응원하고 있을게!! 자퇴한 사람이 써도 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제발 무시하 올라가면 좋겠다... 너네가 보고 있다면 잘 올라간 거겠지?? 자퇴한날에 김태진쌤 수업시간에 울면서 한 명 한 명 인사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슬퍼. 그리고 선물도 나 이쁘고 먹고 싶은데 좀 보내줄래? 때문에 게 필요하구나. 너네 선물 정말 최고였어. 미국에 가져 올랐는데 꾸게 때문에 실패했어.

유진아 보경아 마지막에 너네가 해준 파티도 고맷다! 지금 벌써 나머지 반년도 후딱 지나갔구나. 벌써 밤학교고 너네가 곧 2학년이 된다니 안 믿겨져. 2학

년 되도 일팔이는 영원할까? 반장? 주연이가 잘 해줄 거야? ㅎㅎ 너무 보고 싶어 다들 우리 꼭 커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애들 이름 하나하나 다 써주고 싶는데 맘처럼 안되는구나. ㅠ. ㅠ. 그래도 한명도 안 잊었다. 너네가 나 잊지 말라고 요로코롬 써본다!

너무 보고 싶다. 일팔아!! 정현재 쌤도! 내가 다시 꼭 영동으로 아킴조례 하러 갈게! 사랑해 일팔이들아♥ 근데 너네 요새 팔스타그램 조용하다? 열일하자!! 그리고 우리 삼현 일학년들도 보고싶다. 이름 언급 안해두

알지? 알거라 믿는다!♥♥

그리고 진주 금산 그리워. 우리 지현이 의진이 서영이 하영이 보고싶다.♥ 내년 7월에 데릴러 나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이만 줄일게! 사랑해요♥ 포두들!!!

- From. 뉴요커 일팔이 출신 가현.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 포슬

매날 우리 이거 쓰지 쓰자 해놓고 안 쓰다가 이번에 쓰게 됐네. 잉 좋아. 내가 생일날에도 편지 못써줬는데 이렇게라도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영광이야. 우리가 올해 고등학교 올라와서 알게 되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다. 그 동안 추억 많이 쌓고 안 친했던 날 부터 지금까지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보내는 게 벌써 9개월? 이나 됐어. 시간 너무 빠르다. 우리 내년에 또 같은 반 될 수 있겠지? 고2 되면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성 공하자! 내가 그동안 많이 놀리고 그래서 서운 했을 텐데 미안해♥ 니

가 그만큼 많이 편해져서 그랬나 봐. 근데도 장난 다 받아주고 쪽 찰 구로 치내줘서 고마워 알려줘♥ 우리 커서도 쪽 연락하고 만나고 지 내자 꼭! 내년에 또 같은 반 되면 내 장난 받아 줄거지? 내가 소원 적는 곳에 같은 반 하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10통 소원도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 꼭 되게야! 안 돼도 인 사하면서 아는 척은 해조 ㅎㅎ 평 소에 싸우기만 하다가 편지 쓰니까 좀 많이 어색하고 편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친해 졌다는거에 난 좋아 ㅎㅎ 우리 이번 해 가기 전에 놀자. 이거 잘라서 간직해봐. 버리기만 해봐.



알러뷰~ 조슬기 내랑 싸우지 말고 우리 평생가자.♥ 이려고 우리 싸우면 이별식 할거 같으니까 우리 싸우면 안되는거 알잖? ㅎㅎ 그럼 20000. Ps. 조슬기 맘에 들거나 연락 걸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망설이지 말고 되도록 빨리 걸어주세요(슬기 인스타: seulgil3)

- From. 3반 시크릿 주주

T. 사랑하는 일육이들

육반!!!!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겠지..? 제발 놀라주라. ㅎㅎ 우리 처음엔 진짜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한 명이라도 없으면 2% 부족해지는 짱짱 6반이들이 되었는데~ 모두 고등학생은 처음해보서 어려운 것들 많았을텐데.. 너무 고생 많았고 제발 2학년 돼서도 올 반 단톡은 계속 활동중이면 좋겠다. 생존신고라도 해주세용♥ 진짜 활 기만 6반이라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심지어 시험 전날 들까지도! 난 우리반 잔재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구. 그리고 서로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즐겁고 알찬 1년 보내는 것 같아 기쁘고 우리가 큰 탈 없이 보냈던 거는 내 생각에 서로서로를 많이 배려했었다는 걸로 말할 수도 있겠음. ㅎㅎ 우리 반 착한 친구들로만 다 모여 있는 것 같당! 너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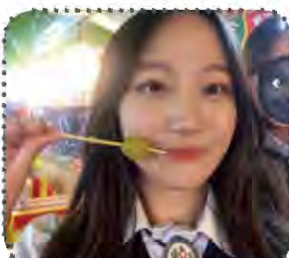
고 싶겠다. 그래서 말인데 너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성인이 될 자신에게 편지 써서 성인이되면 다시 찾아보는 그런 프로젝트 하는 건 어때?? 그때 우리 반 모두 모여서 재밌게 보는 거지!!!♥♥ 필통신문 보면 그때 다시 회이해봐. 알라뷰 육반이들~ 너희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보석들이야. 사랑해 고마워♥♥♥알러뷰~

-From. 6반 사랑동이 숨니가♥

T. 백수민이에게

안녕 수민아. 넌 이 편지보고 놀라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말해 버렸거든^^ 나 사실 글 쓰는 능력이 없어서 편지 잘 못쓰는데 한번 써볼게. 우리 중2때 처음 만난잖아 그때 나 전학 왔을때 너가 내 대각선 뒷 자리였는데 니가 안녕 너도 수민이 니 나도 수민이야 라고 해서 좀 어저 란 거지 싶었지만 신기했단다. 사실 중2때는 엄청 친한 정도는 아니었잖아^^ 근데 중3 올라가고 나서 우리 맨날 일 분단 맨 뒷자리에 앉아서 책상 사이에 과자병치 끼워 놓고 풀 래먹었잖아. 그리고 막 니가 빈즈 과자 먹는 법 알려주고 꼭 굴이 그렇게 먹으라고도 했잖아..

너가 맨날 내 귀에 대고 트림하고 좀 더럽지만 입 냄새서로 막 맡아 주고 그랬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더럽다. 더 더러운 것도 있는데 너의 결혼을 위하여 참을게. 그리고 우리 맨날 배드민턴 쳤잖아. 흑흑 강 동윤이랑 21해서. 진짜 우리 거의 시 대포급이었는데 요즘 잘 안쳐서 못 침. 니랑 배드민턴 맨날 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넌 평생 내 최 모의 친구야! 진심이야^^ 그리고 니가 애플데이 때 편지에 할리우드스타 하는 법, 해서 막 1번 성형을 한다. 2번 성격을 고친다. 이 편지 아직도 있음. 그리고 니가 내 생일 때 우리 집 앞에 과자하고 편지 놔둔 거 진짜 감동의 쓰나미



였음. 진짜. 난 당연히 구란 줄 알았지. 사실 쓸 거 진짜 신문 한 장 채 을 수 있는데 내 분량 너무 나올까봐 참을게. 우리 꼭 성인이되서 같이 술 먹자. 히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예. 난 니가 정말 진심으로 성공했으면 좋 겠어 진심이야♥ 원래 이런 팔 진 심이가 쉽지 않은데 너한테는 진심 이야 사랑해^^

- from. 백이아닌 임수민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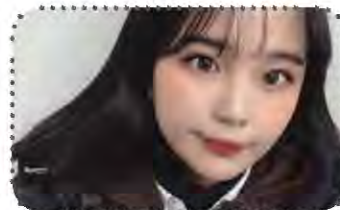
T. 기계공과 와꾸담당 1.88m 윤찬이

중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찬이야, 졸업하고 생까 지 말자고 한 것 같은데 요즘 연락이 없네. 고등학교 생활이 즐거운 건 이해하지만 근 1년간 한 번도 안 만나 는 건 너무 정 없는 거 아니냐? 다른 친구들이랑은 졸업하 고도 잘 만나는데 너랑은 아직 못 만났다.

계속 집에서 배그만 하지 말고 올 겨울에는 제발 만나 서 놀자. 아 참고로 졸업하고 취업하면 일본 보내준다는 약속 아직 기억하고 있다 ㅎㅎ 2년 뒤에 기대 한다. 친구 야!

- From. 동명고 인싸 1.9m 황주원이

T. 서도배



서여나 이제 안 빼질 거지?? 생일 축하해! 사랑해♥♥ 선산 곱함 사주 배고파~ 폰프 포에버 ♥♥♥♥

- from.지은짱

T. 1학년3반 최고 꼬맹이 희맹이

급작스럽게 쓰는 편지지만 좀 장 난스러워도 이해해라^^ 와 미리 같게 쓰는 거 처음인 듯. 맨날 장난치고 우리 거의 뭐 양숙 이니깐^^ 우리 서로 눈만 봐도 싸 우잖아 ㅋㅋㅋ 지금 생각해보면 개유치 해 미친 ㅋㅋㅋ 이제 감정 잡고 진지하게 쓴다. 완전 학기 초반 때 생각해보면 니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내 폰 으로 셀카 찍고. 뭐 초반이니깐 사소한 행동에 웃어주고 그랬다 이가. 그리고 나 니 처음 봤을 때 신기했다? 왜냐면 니 같이 노는 애 처음 봤거든. 근데 거의 일 년 을 니랑 다니니깐 나도 니랑 비 슷해지더라. ㅎㅎ 그리고 항상 여행 가니깐 수학여행가서 재 느끼는 건디. 니 같은 웃인 애 있어

서 학교 다닐 땐 난다. 내가 힘 들어하면서 니한테 고민 털어 놓 으면 니가 의외로 잘 위로해주데 ~ 그래서 그럴때마다 감동 먹고 그럼 그래서 나도 니 힘들 때 따 다 우지 잘 도와 줄라고 하고 위로 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더라~ 근 데 또 막 애들이랑 놀 때는 장난 오지게 치고 놀리고 그러니깐 가끔 씩 짜증날 때 있음. ㅋㅋㅋ♥♥ 근데 또 보면 볼수록 니 좋은 애 같 기도 하다~ 요 말쑥 ㅎㅎ 뭐 내 가 쓴 거 보니까 욕만 칭찬반이 고 ㅎㅎ 아 폴랑~ 2학년때 꼭 같 은 반 되자. 제발 ^^ 우리 1년 더 붙어 다니자. 2학년때 수학 여행 가니깐 수학여행가서 재 미나게 놀자 ^^ 우리 뭐할지도



정했잖아. 휴~ 2분의 확률로 같은 반이 될 수 있음 가능성 대박 많 음 ㅎㅎ 만약에 같은 반 안되면 방학 때 열심히 놀자. 그리고 답답신생님 제발 잘 걸리길 바 랐다♥♥ 난 이만. +++ 아 그리 고 희맹이 크리스마스에 남긴 생일 예정이니깐 뭐. 주변에서 눈치 없 이 놀자 이런 말 안했으면..

- from. 마피아 개 꽃하는 난쟁

T. 심슨

심슨~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네. 우리 처음 말 해 본 게 영어학원 앞에서 싸웠을 때인데 ㅋㅋ 2학년 때 같은반 되고 친해져 서 같이 놀러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같이 가고 다했는데 ㅋㅋ 3학년 때 반 갈라지고 나서도 맨날 같이 놀았잖아. 너네 반 쌤이 같이 못 놀게 하긴 했지만. 한 번 만나서 같이 놀기로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네. 답에 밥한 끼 하자

- from.어지호



T. 은령빵꾸

장은령 안녕. 난 니가 참 좋은 현진이야^^ 너랑은 왠지 자주 만나도 많 이 못 보는 거 같아서 더 자주 만나는 거 같다. 알고 지내지도 정확하게 몇 년은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된 거 같은 느낌 ㅎㅎ 뭔지 알지~ 힘든 일 있을 때 묵묵히 도와줘서 고마워. 그냥 뭐 그렇다고~ 방학하면 빨리 만나서 또 놀러 가자. 방학 전에도 초전동 오는 날이면 전화 걸어라. 잠깐이라도 놀게 치킨 먹자.^^ 만년쌈도 보러가자 맨날 장난 쳐도 니 제일 좋아 하는거 알지. 너랑 알고 지내면서 싸운 적 한 번도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자 은령♥♥

From. 현진



T. 섹시여신프리티존예준구청순가련오마이갓큐티 짱아짱짱강가온

나랑 쌍둥이라고 오해받는 가운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곳인데 4년 동안 같은 반이 한 번이 안 되냐? 2학년 때는 제발 같은 반 되자. 니 덕분에 항상 웃을 수 있어서 좋다! 우리 어디가기로 한 곳이란 말기로 한 거 빨리 돈 포아서 다 가고 다 먹으러 다니자! 난 니랑 먹방 투어 하고 싶으니까 놀기보단 먹방으로 앞으로 이대 로 쪽 짹쪽 잘 맞게 오래 지내자 말라쥬 강가온~

-From. ?



T. 채림 윤지 현진 채희에게



안녕 친구들! 잘 지내지? 우리 중3때 되게 재미 있었는데. ㅋㅋ 막 하주는 막 엄청 웃고 하주는 엄청 울고 ㅋㅋㅋ 제일 기억 에 남는 건 체육시간에 수업 늦어서 엎드려 뺏쳐 하고. ㅋㅋ 그 와중에 웃겨서 벌 받으면서 웃고. ㅋㅋ 그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졸업식이 졸업식인줄 모르고 그냥 흑 지나가서 고등학 교 갔는데. 아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구나 하더라. 광양 간 바쁜 채희랑 다 같이 만나자♥

- From. 지영

안녕하십니까? 필통에서 2019년도를 이끌어 갈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의 학생기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필통에서는 글 잘 쓰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열정과 책임감이 넘치고
배려심 많은 매력적인 사람을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멋진 시간을 필통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2019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학생기자단 공개 모집



모집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모집인원 15명내외

모집대상 진주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퇴학생도 지원 가능함)

모집방법 서류전형-면접으로 합격 통지함
(면접통과후 기자학교 수료)

응시방법 필통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
기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로 보내주세요.
(feeltong1318@hanmail.net)

문의 전화 070-8628-1318
카카오톡 아이디 saram1318

이거레알



필통은 경상남도교육청, 진주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디자인의 모든 것!
노는아이! minijebi

디자인 컨셉에서부터 견적까지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포스터 / 전단 / 명함 / 스티커 / 리플렛 / 팜플렛 / 봉투 / 현수막 / 배너 / 쿠폰 / 메뉴판 / 간판 / 카페 / 블로그 / 홈페이지 디자인 / 로고제작(CI·BI) / 파워포인트제작



이명균 이영란 이영주 이향준 이흥구 이홍희 이루기 이옥남 이유정 이윤자 이원자 이을경 이윤희 이은경 이은영 이은주 이은하 이민자 이재석 이재승 이재현 이장숙 이장숙 이창현 이창희 이충원 이주미 이진희 이창욱
이종석 이빈진 이예숙 이현숙 이현미 이혜영 임성연 임경록 임기경 임병선 임병재 임 석 임소정 임수연 임채라 임채자 전상술 정경숙 정교은 정귀란 정기준 정길순 정길호 정경란 정동근 정묘고 정미란 정미숙 정미영 정민정 정봉관
정복희 정성권 정서화 정순인 정승환 정연수 정영문 정유영 정은영 정음화 정영한 정영찬 정영진 정종태 정주용 정철호 정철호 정진표 정형진 정현태 정형호 정훈은 조경민 조난식 조미란 조복중 조성한 조미환
조성호 조우영 조우열 조은수 조은희 조은아 조재선 조재우 조지관 조지현 조현우 조현우 조준경 조두만 조준경 조우희 지광근 진건영 진해철 진옥순 진필길 진혜숙 차영지 차영석 차은아 천규영 천수신 천윤걸 최금희 최경희 최 미현
최상일 최선미 최성재 최성환 최천주 최유동 최운모 최정민 최진희 최지현 최희숙 추수현 탁득수 하기용 하병렬 하윤지 하지선 하혁경 한기민 한소실 한현도 허규용 허문보 허윤정 허정림 홍선익 황규민 황기삼 황수영 황원희

필통지정 배부처 | 필통은 진주시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부 됩니다.

〈신안-평거동〉 아이쿱생활 신명점, 진주문고, 행복중심생활, 여성민우회, 탑마스터저(D-BOX), 형평기념사업회 〈상봉동〉 문학당서점, 형설서점 〈시내권〉 아름다운가게, 대영서적, YMCA, 서경방송, 다원, 죽향 〈철암-강남동〉 커피포트, 등촌서점, 안커페, 응울, 단디커피, 모두의아파트, 소문난서점 〈동동〉 진양서적, YWCA, 달팽이도서관, 드림고, 학문서점, 마하도서관 〈호탄동〉 진주시민미디어센터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모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네모네모로 직 응모하기>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9년 1월 20일(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첨을 통해 32분을 추첨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변동가능) 당첨자신분들은 필독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칸이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퀘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통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은 것 아니요?^ㄹ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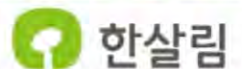
[illegible]

당첨자를 축하드립니다 1등 - 문상 1만원권(2명) : 김민재(대이고1-2)/ 정주원(진주여고1-5)

2등 - 문상 5천원권(32명) : 조화철(진주교2-8)/ 강정훈(진주교1-7)/ 조인규(진주교2-6)/ 권세림(제일교2-2)/ 장나윤(제일교1-8)/ 최소연(진주교2-1)/ 이승주(동명교1-7)/ 여호린(동명교2-5)/ 정서현(삼현교2-4)/ 박소민(삼현교1-6)/ 류경연(경해교1-11)/ 김은후(경해교2-6)/ 송창현(진주교2-7)/ 김준호(진주교1-6)/ 이정규(명신교1-6)/ 김재명(명신교1-1)/ 정진배(선명교2-1)/ 김소현(진강교2-1)/ 이승환(대교2-10)/ 서석준(중앙교2-8)/ 장준호(사대부교2-4)/ 정예민(사대부교2-3)/ 조민기(동명중1-3)/ 김진명(진주중3-4)/ 전예은(진명여중3-10)/ 유여진(진명여중3-3)/ 박현성(대아중3-3)/ 남지민(진주여중3-4)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당첨된 분은 학생지나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독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981.8808 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한살림 경남은
필통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후원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곡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